

화인화문문학과 디아스포라

高慧琳¹⁾

1. 화인화문문학의 정의와 범주
2.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3. 화인화문문학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4. 화인화문문학과 디아스포라
5. 화인화문문학의 미래와 전망

1. 화인화문문학의 정의와 범주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이들 문학을 소비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과 현상들은 앞으로의 화문문학 연구에서 논의될 만한 중요한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화인 디아스포라문학 연구는 단순히 중국문학의 영역 확장이나 새로운 담론의 모색이라는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요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화인 집단은 이민자 집단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디아스포라 무리 중의 하나이다. 디아스포라는 과거 유대민족의 강제이주로부터 유래된 말이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더욱 광범위한 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민족적, 집단적 정체성에서 개인적 정체성으로의 이행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디아스포라 연구의 근간이 되는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를 화인 디아스포라에게 적용하면, 중화주의적 독단을 경계하는 동시에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의 문학적, 문화적 가치를 그 자체로 수용하고 인식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화인화문문학에서 있어 이민 1세대에서 시작된 문화적 갈등과 그로 인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이민 2, 3세대 문학 창작의 토양이 되었다.

북미 지역의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관심은 허세욱의 말과 같이 이 지역의 문학작품들은 일종의 분명하고도 특징적인 경향을 띠고서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남북미와 호주, 유럽지역의 화문문학과 더 일찍이는 주류와 지류로 나뉘었던 각 지역의 문학작품들은 점차 노스탤지어 문학, 디아스포라문학, 유학생 문학의 형식으로 생산되었다고 분류한다. 더불어 그 문학은 삶에 충실하고 현실적이며, 그들의 감성 코드는 해당 지역에서 이미 ‘횡적인 발전’을 계속해왔다.²⁾ ‘횡적인 발전’은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을 논함에 있어서 일종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이 중국대륙 문학과는 분명한 차이와 특수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화인화문문학을 논함에 있어 북미 지역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한가에 관한 문제는 이 지역의 이민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데이비트 펜드리(David Pendery)는

1) 부산대학교 강사, 현대중국문화연구실 연구원

2) 至于南北美洲、澳洲、歐洲地區的華文文學，還早於辯清主流與支流，他們在產生懷鄉文學、流浪文學、留學生文學，他們的文學充實於生活的，現實的，但他們的華文感性，已有一層距離。因而可以說他們在海外形成了橫的發展，却與中國靠近的東南亞不同了。東南亞主要的華文文學地區，已經易地生根，他們離開了祖先的母土，越來越遠，對土生土長的地方認同方深，中國與海外華文文學在內容上，似乎有「遠交近攻」的現象。허세욱, 〈華文文學與中國文學〉, 《중국어문논총》 1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1996), pp. 201-212.

“1800년대 중반부터 미국으로 이주해온 중국인들은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갈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왔다.”³⁾”고 하며 이를 북미로 향한 화인들의 이주의 시작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미 지역 자체가 이주와 이민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민도 자유로웠으며 일찍부터 다문화사회, 다인종사회로 발전해 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북미 화인화문문학은 연구대상으로서 풍부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중국대륙에서는 화인화문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로 줄곧 이를 세계중국문학의 일부로 간주해왔다. 그리하여 화인은 곧 중국대륙 사람의 연장선상에서, 화인화문문학은 중국대륙 문학의 연장선상에서 언급되었다. 王潤華는 “5·4 신문학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관은 식민문화가 주도하는 사조가 되었다. 오로지 중국대륙 중심적 문학관의 인정을 받는 생활경험이나 문학적 기교형식만이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의 말레이시아 작가들은 전쟁을 전후 하여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4 신문학의 경전이 되는 어떤 작품들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데 힘겨워하고 있다. 중심에서부터 온 ‘정확성(authenticity)’은 본토작가들이 새로운 제재와 새로운 형식을 탐색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로 인해 별 수 없이 많은 작가들이 멀리 말레이시아 식민지의 생활경험을 쓰게 되는 것”⁴⁾이라며 중국대륙의 이데올로기적 전략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화인화문문학’이라고 명명할 경우, 세계 각지 중국인들의 문학작품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華人英文文學’ 혹은 ‘華人韓文文學’, ‘華人日文文學’ 등과 같이 어떠한 언어로 창작되었는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다. 화인들에 의해 창작된 여러 언어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화인화문문학과 화인영문문학, 화인한국어문학, 화인일문문학 등을 통해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을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화인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지칭하기 위해서는 화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수 있으며, 그들의 문학 역시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다. 근래에 와서 이 새삼스럽게 발견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문학 내지 문학 현상의 개념과 범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잠정적으로나마 ‘화인문학’, ‘화인화문문학’ 등으로 부르는 것이 더욱 실용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⁵⁾

중국은 한족 중심에서 벗어나 ‘화인’이라는 용어를 고안해내는 한편 ‘화문문학’을 중국문학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대륙의 바깥에 있는 중국인들을 현지부적응자로 규정하게 되는데 이런 중국대륙의 입장을 비판 없이 수용한다면 사용언어만 달라졌을 뿐 같은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과 같다. 그 대신 화인화문문학으로 정의하게 되면 문학 주체는 물론 문학의 대상 언어까지 함께 정의내릴 수 있다. 따라서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으로 포괄적으로 부르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화인화문문학’으로 명명하여 사용언어에 대한 구분을 함께 나타내고자 한다.

뚜렷한 규모와 성격을 갖춘 대표적인 화인화문문학의 집단은 동남아와 북미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크게 동남아 지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3) Chinese people immigrating to the US from the mid-1800s came voluntarily, with plans to return to their families. David Pendery, “Identity development and cultural production in the Chinese diaspora to the United States, 1850-2004: new perspectives”, *Asian Ethnicity* Vol.9, No.3, October 2008, p. 203.

4) “當五四新文學為中心的文學觀成為殖民文化的主導思潮，只有被來自中國中心的文學觀所認同的生活經驗或文學技巧形式，才能被人接受，因此不少新馬寫作者，從戰前到戰後，一直到今天，受困於模仿學習某些五四新文學的經典作品。來自中心的真確性(authenticity)拒絕本土作家去尋找新題材、新形式，因此不少被迫去寫遠離新馬殖民地的生活經驗。[……]這種文化霸權(cultural hegemony)所設置的經典作家及其作品規範，從殖民時期到今天，繼續影響著本土文學。魯迅便是這樣的一種霸權文化。王潤華，《華文後殖民文學——本土多元文化的思考》，(臺北：文史哲出版社，2001)，p. 139.

5)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pp. 80-81.

뭉어 동남아 화인화문문학으로, 북미 지역은 그 자체로 북미 화인화문문학으로 뭉어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

북미 지역의 화인들이 African American이나 유대인과 다른 큰 차이점은 데이비드 펜드리⁶⁾의 말⁶⁾처럼, 그들이 중화주의 -여기서는 Central Country complex인데, 중국대륙 중심주의에 영향을 받는 일종의 강박관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는 심적 중심을 유지하면서 더불어 돌아갈 수 있고 영원히 그곳에 존재할 고향/조국이 있다고 믿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화인 디아스포라’는 확장된 범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그의 주장은 긍정적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중국대륙의 시각에서는 중국대륙의 문학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해외 중국문학, 해외 화예문학(華裔文學)을 변방 혹은 경계나 주변에 배치시키는 방식으로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을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적인 구분을 넣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사고는 타이완과 홍콩은 중국대륙에 속해 있고 그들 스스로 해외라고 부르는 문학들도 모두들 중국대륙에 최종적으로 귀속될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는 이견을 갖게 된다.

화인화문문학의 몇 가지 특징들은, 언어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학이 해당 지역의 사회역사적, 문화적 영향과 필수불가결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의 기본적인 특징들과 공통된 부분이 있다. 중국대륙은 중국대륙 중심주의적 경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다문화·다민족에 대한 오랜 이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미 지역에서도 자국 문학의 한 장르로서 ‘ethnic literature’ 혹은 아시아계 미국인 문학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미 화인화문문학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한 관점이 필요하다. 중국대륙에서는 화인화문문학을 속문주의 원칙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

《재일 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에서 이한창의 주장⁷⁾은, 동포문학을 주변부로 상정하고 그 ‘귀속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속문주의를 고집하여 계속해서 식민지 문학을 억압하는 것이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앞으로의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계문학’이자 코스모폴리탄의 진정한 실현이라는 주장이다. 이한창이 속문주의를 비판하는 의도는 언어를 넘어서는 한국문학의 범주 확대를 위한 것이며 이것은 중국대륙에서 속문주의를 강조하여 세계 속의 화인문

6) 중국 디아스포라의 주체들은 유대인이나 흑인들처럼 그들의 고국의 정체성 혹은 귀향의 목적성에 대한 도전들과 대면한 적이 결코 없었다. 중국이란 민족국가라는 의문의 여지없이 오랜 세월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실체로 확립되어 왔고, 그래서 중국 디아스포라 주체는 자신의 디아스포라 경험들을 관련지을 수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온전한 민족을 가지고 있다. Ang의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문명이 발원하는 하나의 중심, 문화적 중심이라는 개념은—이른바 중화주의적 복합체—는 중국의 역사적 상상력 속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요컨대 비록 중국 자체의 내부적인 정치적 사건들에 의해 수차례 유사한 수준의 위기를 느꼈다고는 하지만, 중국이민자들은 자신들의 고국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결코 없었다. 그리하여 일시체류 중국인이 몇 년 뒤 고향이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든(대개는 그럴 수 있다), 혹은 정치적 여건 때문에 귀향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든 되는 중국인의 귀향의 목적은 단지 지연될 뿐이다. (Chinese diasporic subjects never had to face the challenges to their homeland identity and teleology of return that Jews and blacks did. The nation-state of China is without question a long-established historical, political and cultural entity, and thus Chinese diaspora subjects have always had a clearly defined, intact nation to relate their diaspora experiences to. Ang writes that ‘the notion of a single center, or cultural core, from which Chinese civilization has emanated—the so-called Central Country complex—[is] deeply entrenched in the Chinese historical imagination. In short, there was never for Chinese immigrants any true threat of loss of their homeland, although they may have felt something akin to this at various times, because of political conditions in China. Thus, the Chinese teleology of return was only deferred—either in that the Chinese sojourners fully intended to return to home and family in a few years (and were largely capable of doing so), or in that, if a return was delayed because of political conditions, this would only be temporary.’) David Pender, “Identity development and cultural production in the Chinese diaspora to the United States, 1850–2004: new perspectives”, *Asian Ethnicity* Vol.9, No.3, October 2008, pp. 204–205.

7) 이한창, 《재일 동포 문학과 디아스포라》, (서울: 제이앤씨, 2009), pp. 17–18.

학도 모두 중국문학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와 유사하다. 여기서는 이제까지 중국대륙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시각을 전환하고 중심을 해체하며, 포스트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제반 문제를 바라보기를 시도한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정은경이 주장한 “낮선 곳에서 타자의 언어로 빚어놓은 디아스포라문학을 살펴보는 것은 이산의 기원이 되었던 과거 식민지배와 제국주의를 비롯한 세계사적 면면들을 되짚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근대 ‘이후’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존재형식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⁸⁾이라는 부분은 새롭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존재형식의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화인화문문학의 필요성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디아스포라가 고국/거주국이라는 두 개 이상의 국가의 영토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디아스포라 담론이 혼종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주체는 혼종적 형태를 구성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복수적 정체성을 갖는다. 디아스포라가 갖는 국가 정체성 역시 고국/거주국이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어 혼종적이고 복수적인 정체성을 구성한다. 디아스포라 주체가 고국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를 상징하는 망명주체나 이민주체, 그리고 거주국의 국가담론 속에서 주체 구성을 상상하는 동화주체와 확연히 다른 지점에 놓이는 것도 바로 고국/거주국을 가로지르며 잉여적으로 발생하는 혼종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디아스포라 담론에서 논의되는 혼종성, 특히 스투어트 홀(Stuart Hall), 폴 길로이(Paul Gilroy), 리사 로우(Lisa Lowe) 등이 상징하는 혼종성은 데리다의 차연 즉 미결정성의 잉여를 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혼종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만, 19세기 식민공간이라는 식민/피식민의 틀 안에서 논의된 호미 바바의 혼종성과는 확연한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즉 디아스포라 담론에서 논의되는 혼종성은 국가/민족/인종의 경계를 침입하고 횡단한다는 점에서 호미 바바의 피식민 주체의 혼종성과 구별되는 것이다.⁹⁾

혼종적인 것은 식민적·토착적 지식을 분절하고 저항의 능동적인 형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대상(part object)이다. 담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기술로서, 혼종적인 것은 자신의 창조의 조건들을 변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의 소설 속에서 화인 디아스포라 주체의 모습은 어떠한 자화상으로 그려지는지, 그리고 이들이 화인 디아스포라 신분으로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들 디아스포라들이 지닌 혼종성의 특징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이 문화적 첨병으로서 중국과 서양을 연결시켜준다는 중국대륙 중심주의적 견해에 대한 문제 제기인 바 이는 비판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하지만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이 향후 중국문학의 영역확장이라든지 혹은 중화주의적 전략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화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관한 것은 그들이 이주를 통해 축적한 문화적 경험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혼종화된 방식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고정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거나 변화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체성의 의미의 변화 요구에서 파생되어 새로운 정체성의 출현을 의미하게 되었다. 정체

8) 정은경, 《디아스포라 문학》, (서울: 이룸, 2007), p. 17.

9) 황은덕, 〈강용홀의 『동양사람 서양에 가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주체〉, 정진농 편저, 《미국소수민족문학》, (서울: 동인, 2010.4), pp.420-421.

10) 김용규 옮김, 로버트 J.C.영 지음, 《백색인화: 서양이론과 유럽중심주의 비판》, (부산: 경성대 출판부, 2008), p.371.

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국가나 영토라는 틀로 규정되었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약화되고 종족, 인종, 지역공동체, 동일 언어 사용자들의 공동체 혹은 기타 문화적인 형식에 기초한 새로운 정체성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¹¹⁾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질긴 삶의 추구 의지 속에 구축된 저들의 정체성은 저만치 다가서 있지만 직접 손이 닿지 않는, 그러나 거칠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으로 이미 파악된 ‘가변적 정체성’인 것이다.

호미 바바는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부분적으로 닮게 만듦으로서 ‘혼종성’이 발생한다고 짚어내면서 한편 지배자는 피지배자가 자신을 완전히 닮게 되면 구분이 불가능해지고 이것이 결국 지배가 원활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지배자는 자신이 통제하는 권력이 도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닮는 것은 금지하게 되고, 피지배자는 지배자의 양가적인 요구로 혼내내기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항상 원형과 다른 차이가 존재하게 되므로 피지배자는 부분적으로 닮은 혼종이 될 수밖에 없다. 호미 바바의 혼종성은 무의식의 구조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간극의 공간에서 지배담론을 불안정하게 하며 그로 인해 지배담론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적으로 혼종성을 이해할 때 호미 바바의 이론은 적절하다.

호미 바바의 이론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계기들을 구분하여 그 계기를 오늘날 디아스포라적 정체성과 혼종적이고 번역적인 제3의 문화공간을 사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¹²⁾에 필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를 북미 화인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스텐트 홀과 호미 바바의 혼종성에 관한 정의에 덧붙여 화인 디아스포라들이 거주국에서 적응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혼종화 과정을 거친 자발적인 성격을 추가해야 한다.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은 미국의 白先勇, 於梨華, 張系國, 聶華苓 등의 비교적 유명한 작가들 외에도 캐나다의 梁錫華, 盧因, 東方白, 李頻書, 梁麗芳, 亞堅, 陳浩泉, 劉慧琴, 崔維新 등도 있다. 王景山の《臺港澳暨海外華文作家辭典》에 소개된 북미 지역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은 미국 74명, 캐나다 11명으로¹³⁾ 미국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문학단체의 수나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고려할 때도 미국이 더욱 방대한 텍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소설 등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본격적인 작품들의 등장은, 이민 1세대 타이완 출신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창작되면서였다. 그들의 작품은 중국어로 창작되어 타이완과 중국대륙으로 유입되었고 순수하게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조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역되어 읽히기도 하였다.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이 지닌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학에서 보편적이고도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다.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향수가 그것이다. 디아스포라문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은 화인 디아스포라 신분으로서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적 문제로부터 발생하여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화인 디아스포라문학 중에서도 화인영문문학을 보자면, “1960년대의 10년은 중국계 미국인들의 문학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시민권운동에 의해 촉발된 인종적 평등권을 위한 투쟁이 중국계 미국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는 동안 새로운 이민법이 미국 내의 화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다양성을 낳았다. 반전운동, 페미니즘의 부상, 인종문학 운동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 운동의 출현과 같은 그 10년의 다른 사건들은 미국의 화인작가들의 문학에 영향을 끼쳤다. 더 많은 미국 화인 작가들이 독자층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주제의 관심사를 새롭게 형성하는 문학을 생산해

11) 이 개념은 김혜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Vol.50,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 p. 105.

12) 김용규, 〈포스트 민족 시대 혼종과 틈새의 정치학: 호미 바바 읽기〉, 《비평과 이론》 Vol.10 No.1, (서울: 한국비평이론학회, 2005), pp. 29-57.

13) 王景山編, 《臺港澳暨海外華文作家辭典》, (北京:人民文學出版社, 2003.7), pp.1037-1062와 pp. 1113-1114 참고.

내는 데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계 미국인의 문학은 독특한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¹⁴⁾ 尹曉煌은 화인영문문학 작가들이 거주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정립하고 문학의 방향성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1960년대 이후 타이완에서 북미지역으로의 유학은 정치적인 상황과 세계적인 추세에 맞물려 당시 타이완의 대학생들에게는 진학을 결정한다면 선택 가능하게 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타이완이 농경사회에서 급속한 현대화의 진통을 겪던 시기인 196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와 후원으로 타이완 사회가 총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미국의 것은 선진적인 것이고, 미국의 문화는 진보한 문화로 인식되었다. 더욱이 선진학문을 배우기 위해 떠나게 되는 미국 유학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유학 열기는 한동안 지속되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미국에서 학문을 하게 되고 이로써 자연스럽게 ‘유학생 문학’이 탄생되었다. 그래서 타이완 문학에는 1960년대 무렵의 ‘유학생 문학’이 타이완의 현실을 진단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발전한 독특한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타이완을 떠나 미국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유학생에서 이주민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디아스포라가 되는 운명 속에 던져지게 된다. 초기에 이들의 문학작품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의 정서가 작품 전반에 드리워 있었다. 하지만 점차 화인 디아스포라의 특수한 위치를 깨닫게 됨으로써 독자적인 북미 지역의 화인화문문학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¹⁵⁾ 타이완 문학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문학을 ‘유학생 문학’이라고 분류하여 다루고 있지만 이들의 학술적 배경 및 문학 활동의 바탕과 창작의 결과물은 중국대륙, 타이완, 미국적 요소가 복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반영되고 있는 이들의 문학을 단순히 ‘유학생 문학’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연구함에 있어 좀 더 넓은 범주와 시각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화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화인화문문학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2세대 작가들의 창작 이면에 있는 문학적 감수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그들을 그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인 맥락 속에 놓고 보는 것이다. 그 작가들은 미국화가 진행되고 ‘중국인의 미국적인 충성’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았고, 1960년대 후반의 시민운동에 이어 생겨날 인종적 의식을 내다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역사적 맥락 밖으로 데려가기보다는 그들의 작품을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들이 자기부정에서 자기이미지와 자기의식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하나의 거울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주의라는 관념은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이제 상식에 불과한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의 시대에 여전히 ‘용광로’(melting pot)이론이 사회의식을 압도하고 있었고 그들 역시 ‘소수인종적 모델’이라는 정해진 역할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비평가들에게 무시되었다¹⁶⁾

14) The decade of the 1960s changed the Chinese American literary scene forever. While the struggle for racial equality initiated by the civil rights movement raised the ethnic consciousness of Chinese Americans, new immigration laws led to a dramatic increase in, and diversity of, the Chinese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Other events of the decade, such as the anti-war movement, the rise of feminism, ethnic literary activism, and the emergence of the Asian American movement, also had an impact on Chinese American literature. More Chinese Americans were led to participate in creating literature that had expanded readership, a broadened scope, and reshaped thematic concerns. As a result, Chinese American literature entered a distinctively new phase of development. Xiao-huang Yin, *Chinese American Literature since the 1850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0, p. 229.

15) 王潤華, 〈後殖民離散族群的華文文學〉, 《文訊》第189期, 2001.7, pp. 64-70 참고.

16) One way to understand the literary sensibilities behind the writing of second-generation authors, however, is to place them within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of their time. The authors lived in an era marked by an emphasis on Americanization and "Chinese American loyalty" and could not have foreseen the ethnic consciousness that would follow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late 1960s. Instead of taking them out of historical context, we may regard their work as a mirror, reflecting the process by which native-born

화인화문문학이 문학적 가치와 더불어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尹曉煌이 밝힌 것처럼 그것이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화인화문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특히 문화학적 시각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문화라는 것과 특히 문화적 정체성은 디아스포라에 관한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식민시대에는 인종적 우열을 통해 지배/피지배가 이루어졌다면 포스트 식민시대에는 문화를 중심으로 지배담론과 피지배담론이 재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아스포라 신분의 화인 작가들이 주류문화 속에 편입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포스트식민시대의 주된 현상 중 하나가 된다. 혼종화 과정에서 혼란을 겪은 것은 디아스포라 작가들에 한정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전지구화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든 작든 간에 1차적으로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부터 야기된 혼종화 과정을 겪고 있다. 디아스포라들은 좀 더 민감하게 이러한 경험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인 작가들은 디아스포라의 혼종성으로 인해 자신들이 단순히 타자로 규정되는 차별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종성을 다원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나서고 있다.

식민시대에 국가와 민족 단위의 구분은 갈등을 야기하였다. 포스트식민시대 이전에 혈통, 언어, 문화, 종교, 국가 기준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것들은 베네딕트 앤더슨이 주장한 상상의 공동체 형태에 가까우며 이런 맥락에서 중화민족이라는 구분도 과도한 강요의 느낌을 주게 된다. 즉 중국대륙을 떠나있던 이민자들의 자연스러운 향수를 일시적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는 강제되거나 요구받지 않을 때 훨씬 더 안정된 삶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를 이제 하나의 거대 현상으로 인정할 때 이들은 출발지였던 고국과 거주국 양쪽에게 환영받게 되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생존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혼종은 문화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분할되어 있던 사람들을 흔들어놓는 것이다. 베네딕트 앤더슨과 에릭 홉스봄의 주장도 바로 이 국가단위라는 것이 역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에서 포스트식민적 관점이 성립한다. 따라서 국가 단위로 인간집단을 구분하는 패러다임은 이제 종말을 맞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전단계의 사람들인 것이다. 이처럼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는 디아스포라문학 속에 화인문학이 존재하고 그 하위분류로 화인화문문학, 화인영문문학, 화인한국어문학 등등이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화인 디아스포라문학 연구에서 디아스포라 단계에 우려되는 패권주의를 경계하면서 동시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디아스포라라는 현상이 포스트식민시대에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하고, 나아가 디아스포라들이 지닌 이질성이 그들의 개별적인 차이임을 받아들일 때 가능해진다.

Mary Louise Pratt은 ‘접촉지대’라는 용어로 전지구적 현상 속에 발생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설명하고자 했다. 만남의 공간으로 정의된 ‘식민지’는 디아스포라들이 존재하는 곳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다. 지리적·역사적 차별성으로 구분되어 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에서 ‘강제, 불평등, 그리고 끊임없는 분쟁’¹⁷⁾이 야기되었다. 이것은 거주국의 주류문화를

Chinese evolved from denial of self to finding a self-image and consciousness.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seems nothing more than common sense now, but in their era the melting pot theory still dominated social consciousness, and they were preoccupied with their designated role of being a "model minority", a fact that is ignored by some contemporary critics. Xiao-huang Yin, *Chinese American Literature since the 1850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0, pp. 120-121.

17)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New York: Routledge, 1992, p. 6.

수용하거나 흡수하기를 바라는 양 측의 지향과 중첩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교차되는 공간에서는 혼종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진행되는 혼종화는 더 이상 국가를 기반으로 한 거대서사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통합이 아닌 ‘제3의 국가’나 경계문화를 만들어내게 된다.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가 주장한 혼종화가 가리키고 있는 두 가지 대상 중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의 티후아나 지역과 같은 경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탈영토화’ 과정”¹⁸⁾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화인 디아스포라들과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혼종화가 초국가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문화간 접촉을 설명하고 새로운 문화의 조형을 추동해낼 수 있는 이론적 틀¹⁹⁾이라는 말은 이러한 점에서 적절하다.

혼종화와 혼종을 문화의 혼합을 기술하는 역할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혼종은 혼합 속에서 재형성되는 의미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작용한다. 혼종화와 혼종성 논의는 복잡하고 혼란한 전쟁 상태 속에 존재할 것인지 혹은 융합과 조화로운 공존의 상태, 즉 상호문화성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혼종화 정치는 문화들 간의 전쟁 대신 조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호미 바바는 혼종성이 지니는 양가적인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항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꼭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차이로서 인식되었던 다른 문화의 ‘내용’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배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저항은 지배담론이 문화적 차이의 기호들을 분절하고 식민지 권력의 예측적 관계들(위계질서, 규범화, 주변화 등) 내부에 그 기호들을 다시 연관시킬 때, 지배담론의 인식의 규칙들 내부에서 생산되는 양가성의 효과이다.²⁰⁾

바바의 위와 같은 논의에 따르자면 지배자/피지배자간의 관계에서 혼종성이 발생하는 공간이 항상 존재하며 그 공간은 저항성을 갖게 된다. 이를 포스트식민 시대에 적용하면 거주국의 지배담론 혹은 주류사회와 디아스포라들이 만나는 접촉지대에서 필연적으로 혼종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바의 혼종성은 간극의 공간에서 지배담론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정치적 의도를 지닌 적대적 행위는 아니며, 차이로서 지각되었던 다른 문화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부정이나 배제도 아니다.”²¹⁾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디아스포라들이 지배담론에 대응하여 혼종성을 띠게 됨으로써 식민/피식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호미 바바의 관점에 기초하여 진화하는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호미 바바의 혼종성이 무의식의 구조에서 작동한다는 전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스트식민주의 담론들은 미하일 바흐친의 ‘유기적 혼종’과 ‘의도적 혼종’ 개념을 가져오기도 한다. 미하일 바흐친의 유기적 혼종과 의도적 혼종은 다시 바바에게로 돌아가면 피지배자의 흉내 내기가 저항의 힘을 얻게 되는 경우를 의도적인 혼종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를 유기적인 혼종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화인화문문학을 대상으로 ‘의도적 혼종’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혼종이 지배 집단에 의해 전유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

18)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서울: 그린비, 2011), pp. 460-461.

19)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서울: 그린비, 2011), p. 462.

20) Resistance is not necessarily an oppositional act of political intention, nor is it the simple negation or exclusion of the ‘content’ of another culture, as a difference once perceived. It is the effect of an ambivalence produced within the rules of recognition of dominating discourses as they articulate the signs of cultural difference and reimplicate them within the deferential relations of colonial power — hierarchy, normalization, marginalization and so forth.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초판), 2004, pp. 156-157. 호미 바바의 이 책은 국내에 번역 출판된 나병철 역의 《문화의 위치》(서울: 소명출판, 2002)를 함께 참고하였다.

21)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초판), 2004, p. 158.

다. 일각에서는 혼종성 개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성정혜는 다음과 같이 혼종성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

첫째로 디아스포라가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면서 디아스포라가 갖는 특수성과 의미가 사라지고 전 세계의 모든 양상들이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혼종성 역시 세계화와 초국적 문화산업이 만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상적이고 편재한 개념일 수 있다는 점이다. [.....] 두 번째로 혼종성의 개념이 문제시되는 것은 혼종성이 신식민주의의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혼종성의 개념이 광범위해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된 것도 문제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광범위함과 의미의 모호함으로 인해 지배담론에서 혼종성의 저항적인 노력을 지배담론이 전유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기업이 혼종성을 기업 다문화주의에 사용하게 되면 민족적 전통을 상품화/사물화하여 세계적 자본으로 포섭하는 양상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릴 위험이 존재한다. 바트 무어-길버트가 “탈식민적 혼종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차이를 동질화시킬 뿐 아니라 문화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위장된 기존의 위계를 쉽게 간과해버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²²⁾ 이와 같이 혼종성이 일상적인 개념이 될 가능성과 신식민주의 전략에 이용되면서 내재한 저항담론적 성격이 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혼종성 개념의 한계는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종성/혼종화 개념은 유효하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논의는 각각의 국가와 지역과 인종과 언어를 토대로 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작가들은 북미 지역의 1960-70년대 화인화문문학에서 발견되는 초기 디아스포라의 주체와 혼종성 논의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상이자 텍스트의 주체가 된다.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혼종성은 지배담론의 구조인 지배/피지배 관계의 전복이나 권력 장악을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닌 새로운 수용 혹은 공존의 장을 열고 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때 혼종성이 나타나며 기저에 저항담론이 깔려 있는 것이다.

2.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논의는 현재 크게 두 부류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중국대륙 출신의 해외화문문학 연구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타이완 출신의 북미 거주 학자들이다.²³⁾ 이를 위해서 우선 중국대륙과 타이완에서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의 계승과 문화충돌의 현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대륙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북미 화인화문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작가와 작품 속에 내재된 민족의식이다. 이는 중화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나아가 중국문학의 지역적 범위의 광대한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의식은 프란츠 파농의 말²⁴⁾처럼 오히려 큰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저

22) 성정혜, 《탈식민시대의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살만 루시디의 『자정의 아이들』, 『수치』, 『악마의 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2, pp. 20-21.

23) 북미 화인화문문학 즉 중국어로 창작된 작품들만은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내에서 이들을 일컬어 소수종족문학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자연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미국 내 소수종족문학의 경우 미국 문학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작품의 창작언어가 영어로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중국현대문학의 새로운 문학형식으로서의 화인화문문학을 논하는 것이므로-미국문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언어와 인종을 나누어 분류하는 방식은 필요에 따라 언급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중국대륙과 북미지역의 타이완 출신 학자들의 주장을 대비하면서 고찰한다.

24) “민족의식은 모든 사람의 내적인 희망을 아우르는 결정체가 아니며, 대중 동원의 즉각적이고 명백한 결과도 아니다. 그것은 속이 빈껍데기일 뿐이고 원작의 치졸한 모작(模作)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발견하는 문제점은 신생

해요소이자 허위적이고도 허구적인 어떤 것일 수 있다. 중국대륙에서 의도한 중화주의의 강조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북미 화인화문문학이 적절한 곳에 위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막연해 보이던 이 두 가지의 긴장을 구분하는 것이 현 지점이며, 이는 논의의 출발점이면서 도달의 거리를 당기는 지점이 될 것이다.

북미 지역의 타이완 출신 작가들에 대해서 타이완 내에서의 평가는 주로 유학생 문학을 이룬 일단의 작가군이라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대륙에서 태어나 타이완으로 1차적인 이주를 경험한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유학생 출신들이다. 즉, 이들의 문학을 1940년대 일제강점기가 종료된 이후 본격적인 타이완문학이 나타나던 시기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순수한 타이완 문학이자 그 속에서도 하위적인 시기구분에 따라 유학생 문학이라고 일컫고 있다. 하지만 이 작가들의 작품은 타이완 문학임에는 분명하지만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을 통해 타이완 문학에서 더욱 확대되어 연구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대륙과 타이완에서 네 작가를 해석하는 방식과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王德威를 주축으로 하는 북미 지역의 타이완 출신 학자들의 주장이다. 본고에서 이들의 주장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들이 본고의 연구대상 작품의 네 명의 작가들에 대해 내리는 평가와 그것이 Sinophone Literature와 접점을 이루는 방식에 따라 이들의 방향성과 진정한 평가가 노정되기 때문이다. 중국대륙은 중화주의라는 구심점을 통해 중국(대륙)문학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네 명의 작가들을 다루는 데 반해 북미 지역 타이완 출신 학자들은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을 중국대륙이라는 거대한 중심에 대항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역할하게 하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렇다면 같은 대상을 두고 이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긴장을 조성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그들이 각자 의도하는 바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배제한 채 어떤 하나의 중심 속에 포섭되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에 봉착하게 된다.

(1)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현황

북미 화인화문문학에서 20세기 초반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가는 林語堂이다. 林語堂은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도가, 불가적 정신의 계승자로도 연구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로부터 전통적 문인의 정취가 농후한 문체적 특징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최근 들어 林語堂에 대한 연구는 그가 말년에 깊은 관계를 맺은 타이완 학계뿐만 아니라 중국대륙과 타이완 등지의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林語堂研究會’가 閩南 龍州에서 2006년 9월 24일에 설립되기도 했다. 이곳은 林語堂의 고향이기도 하며 오랫동안 林語堂 관련 학술 연구를 꾸준히 진행시켜 온 곳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林語堂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영어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작품 활동을 했고, 일평생 중국과 서양 간의 문화 교류를 위해 힘썼다. 1933년부터 1966년까지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어로 수필을 쓰고 영어로 중국 문화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그의 행위와 이력들은 林語堂이 북미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의 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林語堂 이후로는 1945년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타이완 출신의 화인작가들의 활동이 주목

독립국을 말할 때 흔히 국민을 종족으로, 국가를 부족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는 건물의 갈라진 틈과 같이 퇴행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민족적 노력과 민족 통합을 해치는 편견에 가득 찬 생각이다.” 파농은 정당정치의 부조리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민족의식의 허위를 파헤쳤으며 대립적 상황이 아닌 통합적이고 합치를 이루는 상황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민족의식을 바라보고 있는 점은 본고에서 중국대륙 중심으로 화인화문문학을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면서 동시에 중화주의 속에 억지스럽게 강조되어온 민족주의의 실상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프란츠 파농, 남경태 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그린비, 2004), p. 175.

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대륙과 미국의 관계악화와 중국대륙에 대한 전략으로, 미국이 타이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유학 붐’의 흐름 속에서 더욱 왕성한 활동 기반과 창작열을 불태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북미 지역의 타이완 출신 화인작가들의 활동은 이후 1980년대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신이민(新移民)’에 의해서 북미 화인화문문학계는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된다.

1991년 5월 북미화문작가협회가 7백 명의 회원으로 출범했고 대부분의 북미지역 화인 작가들이 이곳에 소속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격년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북미 지역의 대표적인 작가협회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작가들의 활동에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기반이 된 학술단체는 ‘世界華文文學資料庫’에 의하면 19개²⁵⁾가 있다. 이들 학술단체들의 주요 거점은 미국이었으며 특히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뉴욕과 워싱턴 등지를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적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쪽은 1987년 밴쿠버 지역에서 성립된 ‘加拿大華裔作家協會’가 대표적인 곳으로 성립 초기에는 ‘加拿大華裔寫作人協會’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회원이 60여 명 정도 되며 대개 홍콩, 타이완, 중국대륙과 동남아로부터 이민 온 화인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²⁶⁾ 19개의 학술단체들이 모두 학술지를 출판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黃萬華의 글에서 볼 수 있다시피²⁷⁾ 북미 지역의 문학적 상황이나 문단의 출현이라고 일컬을 만한 움직임들은 초기에는 문학잡지와 학술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보더라도 북미 화인화문문학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학술지가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북미 지역의 화인화문문학의 중심축이자 활동무대가 된 관련 잡지의 출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잡지명 \ 상세	종류	주편	출간	창간	특징
《一行》	시 문예지	嚴力主 編	총 11기	1990.5-	번역시, 영문시, 잡문, 산문, 삽화
《廣場》	문학 잡지	陳若曦 社長 戴厚英 主編	총 2기	1989-정간	-
《文藝廣場》	부 간행물	李藍 主編	-		《北美日報》
《文藝》	부 간행물	黃運基 主編 李永協 執編	-	1983-1987	《時代報》
《東西風》	부 간행물	曹又方 主編	-		《中報文藝》
《紐約世界日報》	부 간행물	-	-	-	문예특집호 발간 ²⁸⁾
《知識分子》	학술지	-	부정기	-	대형종합부정기학 술간행물
《美華時報文藝副刊》	부 간행물	-	-	-	-
《新大陸》	시 문예지	-	격월간	1990.12-	-

<표1> 미국의 화인화문문학 학술잡지 출판 현황²⁹⁾

25) 喬治亞州華文作家協會, 美國華文文藝界協會, 北美華文作家協會紐英倫分會, 文心社, 北德州達拉斯文友社, 亞利桑那作家協會, 華府書友會, 聖路易華人寫作協會, 海外華文女作家協會, 洛杉磯華文作家協會, 拉斯維加斯華文作家協會, 新澤西書友會, 華府華文作家協會, 紐約華文作家協會, 夏威夷華文作家協會, 芝加哥華文寫作協會, 美南華文作家協會, 北卡書友會, 北加州華文作家協會(http://ocl.shu.edu.tw/org_news/html/explor.php, 世界華文文學資料庫, 2011.7.24 검색)

26) 陳浩泉 主編, 《楓華文集: 加拿大作家作品選》, (Burnaby: 加拿大華裔作家協會出版, 1999), p. 230 참고.

27) 黃萬華, 《美國華文文學論》,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00), pp. 5-6.

28) 1988년에는 紀弦, 方思, 張錯, 黃國彬, 喻麗清, 夏菁, 艾山, 杜國清, 謝清 등의 시인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29) http://ocl.shu.edu.tw/org_news/html/explor.php (世界華文文學資料庫, 2011.7.24)

위 9개의 잡지들 외에도 해당 지역의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밀거름이 된 북미 화인화문문학 문학협회로는 앞서 언급한 문학협회 및 학술단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두 곳을 들 수 있다. 우선 ‘北美華文作家協會’는 1991년 봄 夏志清, 琦君, 陳裕壽, 馬克任, 劉晴, 龔選舞, 馬白水, 劉志同, 葉廣海 등이 제창하고 준비하여 여름에 설립했다. 회원으로는 로스앤젤레스의 周腓力, 紀剛, 陳漢平, 戴文采, 蓬丹, 王克難, 周恩, 林童魄, 蕭逸, 謝瑾瑜, 샌프란시스코의 紀弦, 謝冰瑩, 陳若曦, 莊因, 鄭繼宗, 陳伯家, 陳少聰, 夏烈, 應鳳凰, 石地夫, 袁則難, 曹又方, 蕭孟能, 楊秋生, 葉文可, 胡由美, 李芬蘭, 워싱턴 및 중부지역의 張天心, 張系國, 뉴욕의 王鼎鈞, 顧肇森, 劉墉, 謝青, 陳漱意, 龔弘, 보스턴의 鄭愁予, 史家元, 王尙勤, 캐나다의 莊稼, 東方白 등이 있다.

그리고 ‘海外華文女作家聯誼會’는 1989년 7월 설립하여 회장으로 陳若曦를, 부회장으로 於梨華를 선출했다. 회원으로는 중국대륙 및 홍콩과 타이완, 마카오 등을 제외한 유럽과 미주 지역 및 동남아시아 각국 70여 명의 여류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으로는 陳若曦, 於梨華, 聶華苓, 叢甦, 王渝, 林冷, 喻麗清, 淡瑩, 朵拉, 李梨, 歐陽子, 藍菱, 伊犁, 孫愛玲, 李渝, 翠園, 愛薇, 永樂, 青青草, 何潔, 楊秋卿, 尤琴, 郭逸, 梅筠, 石君, 孟淑卿, 孟紫, 張曦娜, 尤今, 陳少聰, 陳婉瑩, 羅珞珈, 間宛, 洪素麗, 藍玉, 白荷, 習鳴, 商晚筠, 詩朵, 君盈綠, 曹又方, 秋笛, 小四, 范零, 莎士, 黃梅, 謝馨, 趙淑俠, 龍應台, 戴小華가 있다.

캐나다에는 星島日報, 明報, 世界日報 등이 주요하며 토론토에 成報까지 해서 총 네 곳이 중국어로 발행되어 캐나다 지역의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에게 작품 활동의 기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화인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다.³⁰⁾ 1989년 9월 설립된 楓橋出版社는 초년도와 이듬해 2년에 걸쳐 여러 권의 책들³¹⁾을 펴냈는데 이 책들에는 낯선 땅에서의 생활과 체험 및 이민자의 심리 상태 및 주류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 중국문화전통에의 향수 등을 노래한 작품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198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위 학술지와 문예잡지들이 앞다투어 창간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는 북미 지역의 화인화문문학에 있어서 시기구분상 하나의 전환점이자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술단체에 참여한 학자들이 중국대륙이나 타이완의 출신 구분이 없이 북미지역의 화인 디아스포라 출신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海外華文女作家聯誼會’와 같은 단체는 회원을 철저히 중국대륙, 홍콩과 타이완, 마카오 등을 제외한 지역의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학술잡지와 단체들의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시기구분³²⁾

林語堂 이후 북미 화인화문문학은 크게 몇 가지 정치적이고도 역사적인 사건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우선 정책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중국인에 대한 몇 차례의 이민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야기된 중국대륙과 미국의 정치적 파트너십 전략의 변화 및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와도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화인들의 자구적인 생존전략 등의 요인도 있다.

30) 陳浩泉 主編, 《楓華文集: 加拿大作家作品選》, (Burnaby: 加拿大華裔作家協會出版, 1999), pp. 11-12 참고.

31) 이 책들은 각기 明耀의 《三雜篇-溫哥華生活雜文》, 《逍遙法外集》, 潘銘燦의 《加華心聲錄》, 《溫哥華雜碎》, 梁錫華의 《懷鄉記-加拿大經驗》, 陶永强的 《蜻蜓的複眼-一個海外華人疏落的夢》, 圓圓의 《我見我寫溫哥華》 등이 있다. 陳浩泉 主編, 《楓華文集: 加拿大作家作品選》, (Burnaby: 加拿大華裔作家協會出版, 1999), p. 12 참고.

32)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 부분은 고희림의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중국학논총》,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11, pp. 323-339)을 이후 추가적으로 수정, 보완한 내용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북미 화인화문문학사의 분기를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한 黃萬華³³⁾의 주장에 따르면, 북미 지역 내의 이민 2세·3세에 의한 문학 활동에 대해서 시기 구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미국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구분은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黃萬華의 시기 구분은 북미 지역의 이민의 역사와 중국대륙 및 타이완과 북미의 정치적 전략적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이 시기 구분법은 해당 시기별 문학창작 주체들의 성격에 따른 구분에 근거하고 있어 북미 화인화문문학사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추가적으로 캐나다 지역의 역사적 특징과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을 함께 살펴본다면 전체적인 북미 화인화문문학사의 개관이 가능해진다.

黃萬華의 주장 외에도 李亞萍의 《故國回望》, 黃昆章과 吳金平의 《加拿大華僑華人史》 등의 책을 참고한다면 북미 화인화문문학사 자체에 관한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華人女作家評述》에서는 화인화문문학의 시기구분이 네 세대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黃萬華의 구분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시간상으로 볼 때, 미국 화인문학은 지금까지 4세대를 경험했다. 1세대는 20세기 초기의 화문문학이고 2세대는 1950-60년대 타이완에서 미국으로 온 작가들이며, 3세대는 1980년대 유학 열기에 힘입어 출현한 사람들과 중국대륙으로부터의 작가들을 포함한다. 4세대는 전지구화 정보화의 조류로부터 출현하는데 2세대의 화예작가들도 포함된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북미 화문문학의 세대교체의 속도는 아주 빠르다.”³⁴⁾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책의 서문 2에서 葉枝梅가 밝히고 있듯이 그녀의 시각이 화인화문문학을 중국대륙문학의 확대³⁵⁾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중국대륙 측의 학자들이 바라보는 ‘해외 화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책은 於梨華 뿐만 아니라 책에서 다루고 있는 木令耆, 裔錦聲, 에이미 탄(Amy Tan, 譚恩美), 陳若曦, 嚴歌苓, 맥신 홍 킹스턴(M. H. Kingston, 湯亭亭), 任璧蓮, 蓬丹, 曾寧을 일관되게 중국대륙 문학의 연장선상에 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단지 ‘확대’만으로 한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미 지역의 화인화문문학사에 관한 상기 책들이 서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黃萬華의 주장을 전제하더라도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본고의 대상 작가들은 -黃萬華의 시기구분법에 따르면- 제3기에 속하는 작가들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북미 화인화문문학을 논의하게 되는 본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이 바로 이 시기구분이기 때문이다. 시기구분 자체에 대한 논의는 黃萬華의 주장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했으며 黃萬華의 주장은 더 나은 시기구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리라고 본다. 이에 본고는 黃萬華의 시기구분법을 참고했지만 그의 구분이 중국대륙 중심주의 시각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黃萬華의 중국대륙 중심적 주장만은 필자의 견해와

33) 黃萬華, 《美國華文文學論》,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00), pp. 3-13.

34) 從時間上看, 美國華人文學迄今已經歷四代:第一代是上個世紀初期¹⁾的華文文學;第二代是上個世紀五六十年代從臺港進入美國的一批作家;第三代是上個世紀80年代出國潮推動下出現的, 包括一批大陸的作家;第四代則適應了全球化、信息化的大潮而出現, 包括第二代華裔作家。可以看出, 北美華文文學的更新換代的度十分迅猛。海外華文文學研究專家黃萬華稱, “文學史展開其自身進程中, 往往二十年一個周期。 葉枝梅 主編, 《海外華人女作家評述: 美國卷》,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6), 서문.

35) 無疑, 本叢書僅是在世界華人女性文學研究方面做些微不足道的努力。從某種意義上來說, 海外華人文學應是中國文學的海外延伸, 又是對中國文學的超越。我們希望以自己的努力增進人們對海外華人作家及其作品的關注。 葉枝梅 主編, 《海外華人女作家評述: 美國卷》,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6), 서문 p. 8.

상이해진다.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은 북미 지역의 이민법 개정과 세계정세의 역사적 흐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³⁶⁾ 그러므로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黃萬華와 李亞萍, 黃昆章과 吳金平의 구분을 참고하면서 역사적 사실들을 함께 기억하여 북미 화인화문문학사를 읽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간	역사적 특징	주요내용	대표작가군
제1기	18세기 후반-1945년	1882년, 1888년의 '排華法案'	중국대륙으로부터의 유학생들에 의한 문학 활동, '5·4' 이후 작가들에 의해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기초를 다진 시기	林語堂, 胡適, 陳衡哲, 冰心, 許地山, 聞一多, 黃遵憲, 朱湘, 梁實秋, 洪深 등
제2기	1945년-1950년대 말	1943년 '排華法案' 철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대륙과 미국의 관계악화	항일 문예활동 중심 30여 개 남짓의 문예단체가 주로 미국 지역에서 생겨남 미국 내 소수종족 문학에 대한 관심 증대 다문화주의의 확산	黎錦揚, 黃運基, 董鼎山, 黃文湘, 木令耆 등
제3기	1960년대-1980년대 말	미국의 親타이완 정책 타이완으로부터의 유학 붐	타이완 출신 유학생 문학 활성화, 문화적 혼종화를 주제로 한 창작활동, 주로 타이완에서 발표·출판되었으나 북미 화인사회의 전형을 보여주며 타이완 문단과도 영향을 주고받음	白先勇, 於梨華, 聶華苓, 張系國, 叢甦, 葉維廉, 杜國清, 鄭愁予, 非馬, 彭邦楨, 王鼎鈞, 琪君, 楊牧, 張秀亞 등
제4기	1990년대-현재	중국대륙과 미국의 관계 완화	타이완과 중국대륙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신이민과 구이민 구분 등장	嚴歌苓, 任璧蓮, 曾寧, 少君, 夏小舟 등

〈표2〉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시기구분과 특징

3. 북미 화인화문문학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1) 중국대륙의 중화주의 시각과 북미 화인화문문학

중국대륙에서는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 5·4신문학운동과 불가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러한 전통을 물려받은 것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5·4의 문학사적, 역사적 가치와 의의는 충분히 이해되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대륙의 화문문학 학계측은 정통성과 전통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일종의 민족문화와 민족주의의

36) 미국에서 소수민족문학 혹은 에스닉 문학이라고 명명된 화인화문문학이 미국의 중국대륙이나 타이완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순진한 가정을 배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문학사회학적 관점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화인화문문학사 자체를 다룬다면, 미국의 이민법이라는 정치적 전략과 역사적 사실을 비교적 무게감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화 및 중화주의로 포섭하려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5·4라는 전통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본다. 5·4의 본래의 의미와 취지도 퇴색시킬 수 있으리만치 강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 중국대륙의 민족주의와 중화주의 열기는 결국 북미 화인화문문학을 그 고유의 것으로 가치판단 내리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단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들은 중국대륙의 화문문학 학회에서 발표되는 단편 논문에서나 화문문학이라는 주제로 연구되는 저술들에서도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족 혹은 민족주의라는 것을 정치적 전략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게 될 때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게 됨은 명백한 일이다. 특히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경우는 더욱 독립적이고 순수하게 학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제 살펴볼 것과 같이 “중국대륙에서 주장하는 바 ‘어종적 화문문학’은 중국대륙이 자국 민족주의 강화를 위해 내놓은 문화적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³⁷⁾이다.

중국대륙에서의 화인화문문학은 1980년대 전후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화인화문문학 자체의 역사를 언급할 때 중국대륙에서는, 潘亞暉의 《海外華文文學現狀》에서 明대에 朱舜水와 陳元贊 등의 일본 이주 이후의 시 창작과 일본문화계에 중국문화를 전한 것을 화문문학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張頤武는 〈포스트모더니즘과 1990년대 중국소설〉에서 중국의 사회적 공간 재구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화의 과정으로 야기된 사회적 변화로 사회제반구조와 각 부문 또한 그 경계를 넘어서는 단계에 있다고 말한다.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문학만이 순수영역 안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이들의 인식과 진단은 시의적절하다. 이들의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문문학도 이처럼 단지 한 문화와 한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존의 형태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문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 범위의 확장 및 연구자들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영역 혹은 기존의 중심의 테두리 바깥에 있던 지역에 대한 관심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중국대륙에서 북미 화문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중국대륙의 바깥에 있는 화인들의 신분인, 특히 북미 지역의 화인들의 경우, 명백하게 드러나는 바, 고국/거주국, 주체/객체의 이분법적 대립 속에 소외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써 화문문학 주체인 작가들은 다른 문화 속에 타자로서 존재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 문제와 직면하게 되며 나아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들은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주류 사회나 문화 속에 편입되지 못하고 제3자라는 ‘타자의식’을 항상 잠재의식 속에 내포하게 되고, 이는 이민 1세대와 2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의식임을 강조한다. 史進은 〈論東西方華文作家文化身份之異同〉에서, 작가들이 ‘특정한 가치 관념으로서의 신분 출신의 낙인을 가지고 있다.’³⁸⁾고 하는데 이는 곧 문화적 정체성 문제와 연관된다. 즉 주류문화 속에 섞여 들어갔다 하더라도 항상 자신은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도록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영원한 이방인이고 완전히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주류 사회와의 갈등의 씨앗을 항상 잠재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 화인 디아스포라들을 ‘타자의식’이나 ‘영원한 떠돌이’ 혹은 ‘영원한 이방인’ 등으로 치부한다면 중국대륙의 시각이 화인 디아스포라 자체의 다문화적이고 발전적인 잠재력을 단편적인 시각에서만 다루고 있음을 드러낼 뿐이다.

37) 語種的華文文學並不是對對象的公正、客觀的描述，由於暗含了族群主義“文化策略”，它主要是對華文文學的強制性的、扭曲化的規定。在這種情況下，華文文學存在本身是被變形了的，研究視域裡的華文文學與其說是客觀存在的文學形態，還不如說是研究主體具有族群主義屬性的學術套路的環節。莊園 編，《文化的華文文學》，（汕頭：汕頭大學出版社，2006），p. 143.

38) 史進，〈論東西方華文作家文化身份之異同〉，《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2004年第2期，（北京：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2004.2），pp. 173-177.

중국대륙에서 보는 화문문학 혹은 해외화문문학에는 이중 문화 간의 교류가 나타나지만 이들 문화의 접합점과 지향점은 중국 전통문화로의 회귀라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대륙 학자들이 민족주의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이질적인 둘 혹은 그 이상의 문화들이 만남, 충돌, 상호 영향주기, 스며듦의 형태로 작품 속에 체현되고 있다. 중국대륙 학자들은 창작주체의 출신이 제1의 문화로 작용하고 그가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주국의 환경이 제2의 문화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으며 혹은 제3, 제4의 문화도 가능한데, 중국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차이는 그 창작주체에게 갈등요소를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작품 내적인 반응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중국대륙 학자들은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이 주류문화 속에서 바깥에 서 있는 이방인이자 타자의 형태이거나 혹은 작품 속에서는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도 낭만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형태이거나 계속해서 주류세계로의 편입을 시도하지만 합치점을 찾지 못하는 형태로 다루면서 이들이 어떠한 귀결점을 계속해서 갈구하지만 여전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분석해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특히 중국대륙에서 나오는 박사학위논문³⁹⁾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의 심리상태나 작품의 가치 및 창작의도를 단순히 이주민의 자전적 고백 혹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수준 정도로 소략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또 중국대륙 쪽에서는, 해외화문문학에는 ‘中國意識’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중국 의식이라 함은 중국대륙 자체는 물론, 중국인의 사상과 정서와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소설의 서두에 주인공이 중국대륙 출신임을 밝힌다거나 혹은 그의 윗세대가 중국대륙 출신이라든가, 또는 작품의 배경이 중국대륙에서 바깥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작품 저변에 놓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직접 밝히거나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해외화문문학에는 필연적으로 중국적 민족의식이나 중국 문화에 대한 내용, 혹은 최소한 중국적 분위기가 작품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본적인 가설로 상정하고 있다. 肖薇는 〈文化身份與边缘书写〉에서 ‘이민자문학 혹은 화인문학에서 본토에 대한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종종 나타남’⁴⁰⁾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곧 ‘중국의식’이 분명히 표현되는 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본고는 ‘중국의식’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중국의식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중국대륙 학자들의 주장에 더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여기서 ‘중국의식’이라는 것을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풀이한다. 즉, ‘中國이 세계화 속에서 한족으로 대표되던 중국 혹은 중화라는 영역의 새로운 지형도를 상정하고, 이를 위해서 세계 각 지역의 화인 작가들의 문학 및 중국어로 창작된 문학을 모두 포괄하는 것. 동시에 효과적으로 세계화 논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중국의 이미지를 전파하기 위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39) 除了饒芃子、張子清等資深學者,一批年輕的學者在撰寫他們關於美國華人文學的博士論文的過程中,逐漸成長為國內美國華人文學研究的主力。大部分雜誌上發表的相關優秀論文,都出自這批年輕學者之手。相關博士論文主要從美國華人文學與母國文化的關係以及女性視覺而展開,前者如衛景宜的《西方語境的中國故事—論美國華裔英語文學的中國文化書寫》(2001)、高小剛的《北美華人寫作中的故國想像》(2003)、胡勇的《文化的鄉愁:美國華裔文學的文化認同》(中國戲劇出版社,2003)、蒲若茜的《族裔經驗與文化想像—華裔美國小說典型母題研究》(2005)等;後者如肖薇的《異質文化語境下的女性書寫—海外華人女性寫作比較研究》(2002)、關合鳳的《東西方文化碰撞中的身份尋求—美國華裔女性文學研究》(2002)、陳曉暉的《當代美國華人文學中的“她”寫作:對湯亭亭、譚恩美、嚴歌苓等華裔女作家的多面分析》(2003)等。當然,批評視野在不斷地拓展,如李亞萍的《20世紀中後期美國華人文學的主題比較研究》(2004)、陳涵平的《詩學視野中的北美新華文文學的文化進程》(2004)、陸薇的《滲透中的解構與重構:後殖民理論視野中的華裔美國文學》(2005)分別從主題學、文化研究、後殖民理論等主要角度進行探討。 戴濤,〈商文學:美國華人文學研究的新視角〉,《電子科技大學學報(社科版)》第10卷第2期,(成都:電子科技大學,2008.2),pp. 96-97.

40) 肖薇,〈文化身份與边缘書寫〉,《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2004年第1期,(北京: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2004.1),pp. 164-167.

다. 周蕾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전통과 유산이라는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전통과 어느 유산’을 언급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함’⁴¹⁾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대륙에서는 그 이후 제4기에 들어서서 중국대륙으로부터 화인 작가들의 북미지역으로의 이주가 활발해지자 해당 작가들을 가리켜 ‘신이민’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전의 북미 지역의 화인 작가들을 통칭 ‘구이민’이라고 명명하여 ‘신이민’과 구분하고 있다. 倪立秋는 《新移民小说研究》에서 ‘신이민문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

신이민문학은 20세기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이후, (타이완, 홍콩과 마카오에서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을 포함한) 중국의 신이민자들이 해외에서 창작활동을 한 문학작품으로, 창작 언어는 중국어일 수도 있고 영어나 기타 외국어일 수도 있다. 작품의 소재로는 이 작가들의 외국에서의 생활경험이나 보고 듣고 생각한 바, 또는 이주 이후 본국에서의 경험 및 작품 속에서 고향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거나 고국이나 조국에서의 생활과 문화, 인문역사, 정치경제 등 다양한 각도와 시각에서의 생각과 경험들을 담고 있다.⁴²⁾

倪立秋는 신이민문학에 대해서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와 같은 소위 ‘하나의 중국’에서 서양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도 중국적인 것만을 고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고 작품의 창작 언어에 있어서 중국어 외에도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상국가의 언어로 창작한 작품들까지 포괄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얼핏 보면 중국대륙 학계에서 이들의 주장은 미미하나마 일종의 발전적 단계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倪立秋는 여전히 중국대륙의 입장에 서서 해외, 혹은—그들이 지칭하는 통일된, 그리고 중국이라는 공동체로 효과적으로 묶여 들어갈 수 있는—세계 중국인 문학의 한 범주로 세계의 중국인 작가들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점에서는 중국대륙의 기존 시각에서 크게 나아가지는 못한 대륙 중심의 시각을 더욱 확고히 견지한 결함을 보였을 뿐이다. 중국의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차별된 시각의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구이민은 주로 타이완 출신의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이민 작가들은 이들을 타이완 출신 유학생 작품을 대표하는 유학생 작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북미에서 1960-1980년대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뿌리 잃음’과 ‘뿌리 찾기’에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제공하는 작품들을 창작해냈다. 신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품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자층이 한정적이어서 주로 타이완의 문학 소비계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드물게 미국에서도 영역되어 읽히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다. 중국대륙을 떠나고 다시 타이완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한 이들은 ‘떠나온 사람들’이며 정체성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명확하게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하여 이들은 중국대륙을 떠난 신분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이완 정체성으로부터의 영향으로 인해 표면적으로 (신이민에 비해서) 중국대륙의 후광을 이용하기 어렵다. 반면 신이민은 중국대륙 출신의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대륙의 독자들을 의식하여 창작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타이완 출신 작가들에 이어 북미 지역에서 1980년대 이후에 그 수가 점차 증가했다. 이들은 작품

41) 레이 초우, 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전술》, (서울: 이산, 2005), p. 199 참고.

42) 新移民文學應該是指自20世紀70年代末80年代初以後, 由中國新移民(包括臺灣、香港和澳門移居國外的人士)在海外創作的文學作品, 其創作媒介可以是中文, 也可以是英文或其他語言文字。其作品的題材可以是這些作家在國外的生活經歷或所見所聞、所思所想, 也可以是其出國後回首原有的國內經歷而創作的作品, 通過這些作品對其出國前的個體經驗、對母國或祖籍國的生活文化、人文歷史、政治經濟等從不同的角度和距離進行思考或反思。倪立秋, 《新移民小說研究》, (上海: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09), p. 4.

에 있어서 구체적인 독자를 예상하고 있어서 서양인의 오리엔탈리즘을 그려내면서 동시에 중국대륙 독자들의 옥시덴탈리즘, 즉 이국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생산해낸다. (‘이중적 오리엔탈리즘’) 바꾸어 말하자면 신이민 작가들은 창작의 기본 전제로 인해 오히려 중국대륙중심주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북미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미국의 시민이 되어서도 중국대륙이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체성이 뚜렷하게 중국대륙이라는 하나의 접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구이민 작가들과는 달리 중국대륙이라는 후광을 이용하면서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징은 있다. 구이민 작가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상정한 중국대륙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어떤 시점으로 상상하고 있어서 그 고향은 지금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된 공간일 가능성이 많다. 반면 신이민 작가들에게 있어서 중국대륙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은 작품 창작의 원동력이고 동시에 작품 소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구이민과 신이민이 각기 다른 의미로 중국대륙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작품 속에서 재현해내는 중국대륙이 신비화되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다.

여기서는 앞에서 상정한 것과 같이 이 모두를 가리켜 화인이라 부르고, 이들의 문학 중에서도 중국어로 된 문학을 중국대륙학자의 시각에서 정의된 해외화문문학이나 세계화문문학이 아닌 독자적이고도 중립적인 시각의 화인화문문학으로 부른다. 그리고 이들의 문학을 중심의 주변에서 맴도는 것이 아닌 독립적이고도 신생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런 주의 깊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인화문문학은 중국대륙의 5·4와 민족주의를 앞세운 중화주의 강화의 전략에 따라 왜곡되고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인화문문학의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와 범주 정립을 통해서 중국대륙이 화인화문문학을 바라보는 중화주의적 시각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은 물론 작품 속에 내재한 정서가 단순하게 중국대륙 문학으로 귀속되고자 하는 회귀성을 가지고 있다는 중국대륙 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탈중화주의적 시각으로의 전환을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

白先勇을 필두로 하여 於梨華, 張系國, 聶華苓, 陳若曦, 歐陽子, 王文興, 七等生, 從甦, 趙淑俠 등의 작가들이 언급되는 시기는 타이완문학사에 있어서 모더니즘 계열 소설이 꽃을 피웠던 시기와 일치하는데, 이들은 당시 타이완의 모더니즘(現代派) 소설 창작에 주축이 되어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했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는 白先勇, 於梨華, 張系國, 聶華苓은 후일 ‘유학생 문학’의 대표주자⁴³⁾가 된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들은 상당히 유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부모 세대가 대륙 출신이며 아주 어릴 때의 중국대륙생활로 인해 중국대륙에 대한 아득한 고향의 이미지를 간직한 채 유년기에 타이완으로 이주하여 학창시절을 타이완에서 보내고 대학 무렵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유학 시점을 전후하여 타이완에서 혹은 북미에서 작품을 창작하였고 유학 후 점차 북미 지역 내에서 학술적인 지위를 얻게 되어 종신교수의 신분으로 완전히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경험들은 그들의 작품, 즉 디아스포라문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타이완문학의 문단과 학술계에서는 白先勇, 於梨華, 張系國, 聶華苓을 묶어서 유학생 문학의 시초이자 대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타이완의 ‘유학생 소설’이라는 각도에서 평가할 때 비교적 뚜

43) 對廣袤的台灣土地和廣大的台灣人民這個大現實，反而視若無睹或無動於衷，他們的文學不能也不想在台灣生根，自我放逐的結果，他們只能寫《桑青與桃紅》、《紐約客》、《又見棕櫚又見棕櫚》之類的流浪者的悲歌或孤兒哀鳴。 彭瑞金, 《台灣新文學運動四十年》, (臺北: 自立晚報, 1991), p. 142. 유학생 문학의 일군의 작가들이 타이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디아스포라로서의 특수한 신분적 의미를 무시한 채 단편적으로만 비난하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타이완에서 이른바 유학생 문학에 속하는 이들은 미국 국적을 가진 화인의 신분임은 분명하지만 유학생에서, 나아가 이민자-이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디아스포라인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상태, 삶의 방식 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중국과 서양의 문화 충돌로 인한 정신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야기된 곤경 등이 이방인이라는 신분적 정체성과 혼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유학생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뿌리상실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은 타이완 문학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자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於梨華와 聶華苓 두 작가가 주로 활동한 1950-60년대를 통틀어 타이완 문학에서는 ‘無根’에서 ‘尋根’으로의 경험과 방향성 설정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1953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간 於梨華와 1964년 잡지 《自由中國》의 휴간 이후 미국행을 결심하고 이주한 聶華苓은 타이완을 떠나오기 전보다 그 후에 더욱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였다. 於梨華의 소설에서는 타이완 출신의 사람들의 ‘無根’한 상태와 외롭고 고독한 지식인의 심리상태 및 고향으로 돌아와도 그곳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되어버린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無根一代’의 전형적인 이미지 속에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스토리의 흐름이 시간순서를 거스르기도 하면서 주인공의 심리를 따라 움직이는 구조로 설정해 두었다. 聶華苓은 해외를 떠도는 이방인의 심리를 진지하게 드러내면서 인물의 성격과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데 뛰어나다. 於梨華와 마찬가지로 인물의 내면심리의 시공간을 작품의 틀로 구성해내어 사회적, 역사적 상황과 복잡미묘한 인물의 내면세계를 서로 융합시켰다.

이 작가들은 스스로 유학생 문학을 자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게 불리는 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작품이 단순히 타이완이라는 지역적인 한계와 문화적인 단일화에만 기대어 분석하고 연구되기에는 좀 더 풍부한 함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타이완 문학이라는 틀 속에서 유학을 경험한 세대들의 자전적인 기록으로 이들의 작품을 규정하게 되면 그 문학적 성취나 문화적 가치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관한 의문을 갖고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중국대륙에 대한 인식과 타이완에 대한 추억, 그리고 미국에 대한 경험이 어우러져 이들의 정체성과 문화의식, 그리고 인식의 체계를 만들어냈으며 최소 두 종류 이상의 이중의 문화들이 혼종적으로 내재된 가운데 사상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작가 자신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들의 작품은 이미 ‘의도된 혼종성’⁴⁴⁾을 띠고 있다. 정치 사상적인 비자발적 노마드에서 경제적인 자발적 노마드가 되기까지 이들이 체험한 것들은 문학 비평의 잣대로 연구가 가능하다. 이들은 타이완이라는 문화적 특징화에 선뜻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타이완에 대한 향수와 타이완 사람들의 모습마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려되는 점은 역시 중국대륙, 타이완, 홍콩, 동남아, 북미, 유럽이라는 단순한 지역적인 경계와 국적으로만 문학을 구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작품 속의 문화학적 해석의 여지와 가치를 묵살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오류 속에 빠지지 않으면서 화인화문문학을 정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인화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새로운 집단의 출현과 이들의 문학 활동이 포스트식민주의시대인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어떠한 연관과 시사점이 있을 것은 명료해진다.

이들과 같이 ‘디아스포라를 살아내고 있는 존재들’⁴⁵⁾은 가라타니 고진이 말하는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을 지향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이완문학계에서 화인화문문학을 타이완문학의 연장선상에서 다루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대륙과 마찬가지로 그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는 관점에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화인화문문학의 독자성 측면에서 중국대륙보다 좀 더 자율성을 띠고 있다는 시각은 더욱 진보적이긴 하다. 하지만 전적으로 화인화

44)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p. 92 참고.

45) 정은경, 《디아스포라 문학》, (서울: 이룸, 2007), p. 17.

문문학을 새로운 어떠한 집단의 출현과 그들의 문학이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타이완 쪽도 중국대륙 쪽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화인 작가들의 뿌리는 어딘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러한 뿌리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상상하는 민족주의와 고향이라는 특정한 이미지 역시 중국대륙 혹은 타이완이라는 지역적인 틀 안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양자는 기본 전제에서 큰 차이가 없다.

(2) 타이완 출신 북미 학자들의 화어계 문학 주장과 북미 화인화문문학

중국대륙에서 해외문학이나 비교문학에 대한 유행의 바람을 일으킨 주축은 바로 타이완 출신의 미국 학자들이다. 특히 葉維廉⁴⁶⁾, 王德威⁴⁷⁾, 史書美⁴⁸⁾에 이르기까지 타이완 출신의 화인학자들의 학술적 성취와 성과 및 그들의 역할은 괄목할 만큼 왕성하다. 중국대륙의 입장에서 보면 역으로 이들이 중국대륙에 끼치는 영향력도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쯤 되면 타이완 출신 학자들의 괄목할만한 성장 및 역할의 바탕이 되는 밑거름은 어디에서부터 생성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부각된다. 葉維廉은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중국시학을 다루는 쪽에서 비교적 성취를 이루어내고 있다. 더불어 王德威는 작가와 문학작품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을 통해서 기존의 중국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선도하고 있다. 史書美와 같은 학자는 Sinophone literature를 주장하고 있어 주목할 만한데 특히 다음의 글은 중국대륙 중심의 시각에서 보는 ‘중국문학’에 대한 그녀의 의문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과거에 중국의 안팎에서 중국어로 창작된 문학들 간의 구분은 상당히 모호했고, 이러한 모호함은 중국 밖에서 중국어(Sinitic)나 표준 중국어 혹은 다른 것들로 쓰인 문학작품들을 망각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시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영어로 ‘중국문학(Chinese literature)’과 ‘중국어로 된 문학(literature in Chinese)’으로 범주화되었던 것이 혼란을 가중시켰다. 두 범주 속에 들어있는 Chinese라는 단어의 특이성은 Zhongwen(Chinese)와 Huawen(Sinophone) 사이의 구별을 지워버렸으며 너무 쉽게 중화주의로 미끄러져 들어갔다.⁴⁹⁾

Sinophone(화문)의 개념에 대해서 史書美가 다루는 것은 지금의 타이완에 관한 것과 나아가 흥

46) 葉維廉(Wai-lim, Yip: 1937~)은 타이완 시단에서 1960년대 모더니즘 시 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했으며 1967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비교문학 학위를 받았다. 미국 UC San Diego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제는 은퇴하였다. 葉維廉은 모더니즘 시의 재해석과 더불어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에 대한 그의 사고과정 및 다종 문화 간의 인식과 연구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화연구의 창조적 틀과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다.

47) 王德威(David Wang: 1954~)는 타이완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에서 비교문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長江학자이며 중앙연구원의 연구원이기도 하다.

48) 史書美(Shumei, Shih: 1961~)는 한국, 타이완을 거쳐서 현재 미국 UCLA의 아시아 언어 문화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5년 Geremie Barmé와 함께 2005년부터 Sinophone Literature(화어계 문학)를 주장했다. 주요 저작으로는 《The Lure of the Modern: Writing Modernism in Semicolonial China, 1917-1937(现代的诱惑: 书写半殖民地中国的现代主义(1917-1937))》, 《Visuality and Identity: Sinophone Articulations across the Pacific(视觉与认同: 跨太平洋的华语表达)》 등이 있다.

49) In the past, the distinction between literature written in Chinese languages from inside and outside China has been rather blurry, and this blurriness has had the effect of throwing literature written in Sinitic languages outside China, standard Hanyu or otherwise, into neglect, if not oblivion. What used to be categorized in English as "Chinese literature" and "literature in Chinese" added confusion. The singularity of the word Chinese in both terms in English erases the distinction between Zhongwen (Chinese) and Huawen(Sinophone) and easily slips into China-centrism. Shih, Shu-mei, *Visuality and Identities: Sinophone articulation across Pacifi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pp. 32-33.

쿵, 그리고 북미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녀는 Sinophone 연구의 최종 종착지가 화인 디아스포라나 ‘문화적 중국’을 중국대륙과 연계시키는 방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⁵⁰⁾ 그녀는 세계 속의 중국문학을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화어계 문학(Sinophone literature)을 주장하고 있다.

史書美는 《Visuality and Identity》에서 중국학에 관하여 Sinophone literature 쪽으로 이행하는 것이 더욱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대륙 중심주의(Chinese-centralism)를 반대하면서 Sinophone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제국과 코스모폴리탄, 그리고 종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책에서 史書美가 정의하는 Sinophone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바깥이나 중국이나 중국성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생산물의 장소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속에서 중국 대륙 문화를 이질화하고 지역화하는 역사적 과정이 몇 세기 동안 일어나고 있다.⁵¹⁾

이와 더불어 세계 속의 중국문학의 방향을 대립항들의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설명하는데 그것은 ‘중심’과 ‘주변’, ‘중국대륙’과 ‘해외’, ‘중국어(Chinese)’와 ‘화문(Sinophone)’ 혹은 ‘화어(Sinitic)’이며⁵²⁾ 나아가 ‘중국문화’는 ‘화문화(Sino-culture)’ 혹은 ‘화어계 문화(Sinophone culture)’⁵³⁾를 통한 다가치적인 전제로부터 정의 내리기를 시작하여 ‘반세계모니적 화어화문’을 지향점으로 상정하고 있다. Sinophone은 더불어 좀 더 다각적인 비평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王德威는 중국대륙, 타이완, 홍콩, 그리고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화인 작가들에 대한 비평서를 묶어서 책으로 펴내고 있다. 기존에 중국대륙으로부터 정통의 계승이라는 연결고리를 유지하던 북미 지역의 화인화문문학이 최근 들어서 중화주의의 강조를 위한 첨병이자 동서양의 완충지대로 지위가 격하되고 있다. 게다가 오히려 중국대륙 중심주의로 흘러가자 그들의 입지는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 王德威와 같은 학자는 줄곧 자신들이 중국대륙의 정통이자 일부였다고 믿었으나 점차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하고는 북미라는 힘을 기반으로 화인화문문학의 위치를 다시 정의 내리게 되었다. 이는 곧 중국대륙과 파워게임이 가능한 서양을 등에 업고서 자신을 강화하여 중심부를 포위하고 해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타이완과 홍콩은 중국대륙이 중심이 되는 문학 속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50) The purpose of Sinophone studies is not to construct yet another universal category such as the Chinese diaspora and "Cultural China" with obligatory relationship to China, but rather to examine how the relationship becomes more and more various and problematic and how it becomes but one of the many relationships that define the Sinophone in the multiangulated and multi-axiological contexts of the local, the global, the national, the transnational, and above all, the place of settlement and everyday practice. As such, the Sinophone can only be a notion in the process of disappearance as soon as it undergoes the process of becoming, when local concerns voiced in local languages gradually supersede preimmigration concerns for immigrants and their descendents through generations, with the Sinophone eventually losing its *raison d'être*. The Sinophone as an analytical and cognitive category is therefore both spatially and temporally specific. Shih, Shu-mei, *Visuality and Identities: Sinophone articulation across Pacifi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pp. 31-32.

51) A network of places of cultural production outside China and on the margins of China and Chineseness, where a historical process of heterogenizing and localizing of continental Chinese culture has been taking place for several centuries. Shi, Shumei, *Visuality and Identity: Sinophone articulation across Pacifi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p. 4.

52) Shi, Shumei, *Visuality and Identity: Sinophone articulation across Pacifi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p. 33.

53) Shi, Shumei, *Visuality and Identity: Sinophone articulation across Pacifi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p. 122.

대륙의 정치적인 전술에 대해 타이완이나 홍콩 모두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중국대륙의 문학영역 확장은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단순히 문학의 통합적 공동체를 구성코자 하는 순수한 의도만 작용한 것이 아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할 필요는 있다. 만약 중국대륙에서 순수하게 문학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타이완과 홍콩을 하나로 묶어 중국문학이라고 명명하려했다면 그 다음은 동남아시아의 화인문학들도 중국문학으로 포섭할 것은 자명하다. 나아가 유럽과 미주지역의 화인작가들의 화문문학도 세계 속의 중국문학이라는 미명 아래 통합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저들이 범세계적으로 여전히 중국대륙이 중심이 되고 그 외의 문학들이 주변화된 상태의 문학을 논의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결합이나 작가의 의식상태의 구성요건들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중국의식’, ‘대륙으로의 회귀’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작품의 경향을 간과한 채 진행되는 논의들에 있어서 더욱 중심과 주변의 대립논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문학을 한데 놓고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측면은 효과적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립 논쟁을 막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순수한 문학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치적, 전략적 문학 영역의 확장이라는 가설 하에서 본다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나타난다. 확장된 범위에서 각 지역의 화인화문문학이 논의될 것이라는 사실은 앞서의 순수한 문학적 공동체로의 지향의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화주의의 강조와 주변화된 문학의 일시적 편입, 그리고 영원한 주변화가 심화되면서 주변으로 상정된 곳들에 대한 잠재적이고도 점진적인 억압이 행해짐은 물론, 학문적 권력구도가 분명해질 것이다. 둘째, 중화주의의 확장이라는 의도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오리엔트에 반하는 옥시덴트에서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다. 셋째, 중화주의의 강조와 세계문학으로의 통합 단계를 지나게 되면 중국인에 의한 것이 아닌 문학들도 중국문학으로 편입될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컨대 중국대륙의 화문문학 학회에서도 종종 언급되다시피, 중국대륙 측의 학자들 중 일부는 한국의 허세옥을 화문문학 작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더라도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대륙의 주장대로라면 중국대륙이 중심이 되는 중국문학에 북미 화인화문문학을 강제로 통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중국대륙 측의 숨겨진 정치적 전략과 은폐된 이데올로기적 의도를 감안한다면 중국대륙의 주변부로 상정되어 있는 작가들은 저항적인 성격의 문학으로써 중국대륙에 반발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정치문화적인 책략을 간과할 수 있다면 화인화문문학을 앞으로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화인화문문학을 문화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자의 의무가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중국대륙이 의도하는 중화주의의 강조나 王德威가 주장하는 중심부의 포위나 해체 전략 양쪽 모두에 문제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북미 화인화문문학 연구에 있어서 본고는 화인화문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문화학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

王德威가 그의 저작물들에서 지속적으로 수행중인 작업은 역사의 역술적 서술이다. 그는 중국대륙의 작가들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홍콩의 작가들을 아울러 새롭게 재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그가 주장하는 중국대륙을 포괄하여 논의될 화어계 문학의 변증법적 실체들이 되고 있다.⁵⁴⁾

54) 냉전시기 미국에 정착한 타이완 출신 중국문학연구자, 체코로부터 미국 중국 담론에 개입하는 좌파 문학사가, 대중의 함성에 스스로를 동일시할 수 없는 대륙의 문인, 그들 발화의 의미는 왕더웨이의 서정담론의 문화정치학적 의미망 속에서 ‘하나의 층위’로 재정위되고 있으며, 세 발화 지점의 정치성은 왕더웨이 담론의 정치성으로 재수렴되고 있다. 저자는 세 꼭지점을 통해서 1950년대라는 냉전의 ‘시간서사’를 공간적으로 분화하여 기술하는 동시에, 이를 기점으로

王德威가 비교적 젊은 작가들, 말하자면 중국대륙에서는 ‘당대’ 작가들⁵⁵⁾로 불리는 작가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王德威는 “‘당대’라는 공간은 오픈되어 있으며, 때마침 당대라는 시간은 다원적이기 때문”⁵⁶⁾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당대’를 대하는 王德威의 시각에서 필자는 王德威가 중국대륙이 주장하는 중국대륙 입장에서의 중심부를 포위하는 방식을 발견하게 되고, 잠재적으로는 중국대륙 중심주의에 반대 의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학외재적 시각의 야로슬라브 프루섹(Jaroslav Průšek)과 문학내재적 관점의 夏志清的 양자구도는 중국대륙의 시각을 배제하던 20세기 북미 지역의 학계에서 적극 수용되었듯이 그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유효하며 계보를 이어받은 王德威의 주장도 큰 맥락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夏志清에서 李歐梵, 그리고 王德威와 史書美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계보는 북미 지역의 중국인들의 문학, 본고에서 말하는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문학사적 뒷받침이 되는 기본으로 줄곧 인식되어 왔다. 이것은 《The Monster That is History》⁵⁷⁾의 앞부분에서 王德威가 환기시킨 야로슬라브 프루섹의 유의미성과 夏志清으로부터의 학문적 계보의 전통의 강조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디아스포라적 관점에 입각하여 王德威가 말하는 중국대륙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대륙마저도 탈중심적인 시각에서 다루게 되고, 나아가 ‘중화주의적인 중국대륙 중심의 중국문학’ 대 ‘그 외의 문학’으로 경계 지워진 담론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것으로 화어계 문학을 주장하는 것은 王德威의 의도와 같이 중심부를 포위하고 해체하는 한 가지 방법이자 쟁점적인 사안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王德威의 화어계 문학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의도는 중화주의의 해체와 다원주의로의 이행에서 마무리되지 않는다. 王德威의 견해는 중심부를 포위하고 해체해서 주변부에도 또 다른 중심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대륙의 시각에 반대하면서도 중국 바깥에서 궁극적으로 중국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변종 중화주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흐친은 “모든 문화적인 것들은,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사회 구성체는 결코 완벽하게 설계되지 못한다. 사회 구성체는 가까이에 지니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변통해간다. 그것이 어떠한 형식을 발전시키든지 그 형식은 예기치 못한 부산물을 산출하는데, 이 부산물은 뜻밖의 방식으로 미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⁵⁸⁾고 했다. 화인 디아스포라문학, 그리고 화인화문문학의 실체 역시 바흐친의 말처럼 문화권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생산된 것이지만 사실 이들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력은 단순히 문학적인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에서 이전의 대륙문학사를 소급하여 서술하는 ‘역술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노정은, 〈왕더웨이 「유정의 역사」에 대한 짧은 독해〉, 《중국현대문학》 제54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0), p. 183.

55) 王德威의 책 《當代小說二十家》,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6) 서문 4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대륙 작가로는 王安憶, 蘇童, 余華, 李銳, 葉兆言, 莫言, 阿城을 다루고 있으며 그 외에 타이완과 홍콩 및 북미화인화문문학 작가들 1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작가들은 1980년대 이후 각 지역에서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작가들로 부각되어 온 이들로 각기 그 지역적인 특색을 작품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성과가 높다. Sinophone literature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이렇듯 대표성이 있는 작가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대표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제기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견된다.

56) 當代的空間是開放的, 恰如當代的時間是多元的。王德威, 《當代小說二十家》,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6), 序 부분 참고.

57) David Der-wei Wang, *The Monster That Is History: History, Violence, and Fictional Writing in Twentieth-Century Chin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pp. 1-15 참고.

58) 게리 술 모슨, 캐럴 에머슨 지음, 오문석 등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 (서울: 책세상, 2006), p. 100.

(3) 한국의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시각과 북미 화인화문문학 연구

이옥연은 2000년 高行健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더불어 화인 디아스포라 문제를 이미 피할 수 없는 가시화된 쟁점이자 현안인 것으로 지적하며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의 영역에 高行健의 작품들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옥연은 高行健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즈음한 동남아시아 각국 화교권의 상이한 반응들은 바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이는 곧 ‘중국이라는 기표를 전유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언급하며 심지어 중국대륙의 문학도 통합적인 범주에서의 ‘중국문학’ 속에 포함되는 한 지역의 문학이라는 점을 찬성한다.⁵⁹⁾ 이와 같은 주장은 현 시대의 중국문학 연구에서 피할 수 없는 쟁점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高行健의 문학이 디아스포라문학을 표방한 것도 아니고 작가 자신이 스스로를 이산자나 디아스포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그와 그의 소설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고 비평가들은 갑론을박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보더라도 중국대륙 중심의 중국문학 내지는 중화주의적 중국문학이라는 개념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고집스럽게 중국대륙의 것만이 정전이 되는 상황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黃萬華는 《美國華文文學論》에서 북미 지역 중에서도 특히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들을 예로 들면서 소설로는 白先勇, 於梨華, 聶華苓, 張系國, 叢甦을, 시에서는 杜國清, 鄭愁予, 非馬, 彭邦楨, 葉維廉을, 산문에서는 王鼎鈞, 琦君, 楊牧, 張秀亞 등이 성과가 많으며 가히 대표 격으로 인정받을 만하다고 평했다. 白先勇, 於梨華, 張系國, 聶華苓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고향회귀와 상실, 혼종성, 정체성혼란, 이민자의 문제, 문화갈등, 이중언어를 통한 창작 등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은 북미 지역 화인화문문학의 타이완 출신 이민 1세대 화인들의 특징이자 전체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의 중요한 성격이다.

21세기는 인구이동, 이산, 노동이동, 세계적 자본과 미디어 운동, 문화적 순환과 혼종의 과정으로 인해 지역 정체성과 지역 구성을 좀 더 섬세하고 민감하게 읽어낼 수 있는 감각적인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소수자들의 디아스포라문학 작품들이 오히려 주류문학의 아류와 같은 역할만을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는 이들도 있다. 즉, ‘주류문학의 장식품 또는 형식적 추가 항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 학문적 소비를 위한 유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⁶⁰⁾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미 지역의 문학 내에서 ‘정전’의 위치를 얻게 되는 것은 서구중심주의 주제 속으로의 편입만이 그 문학이 새롭게 주제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세계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내림 역시 하나의 과제로 남게 된다. 하지만 모든 ‘소수적인 문학’은 거대한 문학 안에 존재하는 혁명적 요소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소수적인 문학’은 그 문학적 형식이나 체제와 소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학을 예측할 수 있는 방향점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을 그 자체로 읽을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서 화인화문문학은 세계중국문학의 한 지역 혹은 미국에서 형성된 중국대륙의 상대적 개념의 화어계 문학이 아닌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바로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언어의 문제가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을 분류하는 중대한 기

59) 까오싱젠의 문학은 ‘중국’ 문학인가? 해외 중국인들의 문학은 중화권의 개별 국민국가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중국 문학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산출된 문학만을 지칭하는가, 아니면 홍콩, 타이완, 그리고 해외 중국인 디아스포라문학까지를 모두 포함하는가? 만일 중국 문학의 경계를 후자의 경우처럼 확장할 경우, 해외 중국인 디아스포라문학은 중국대륙이나 타이완 등 중화권의 개별 국민국가 안에서 산출되는 문학과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중화 문화권을 둘러싼 민감한 문제들이 까오싱젠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일시에 돌출된 것이다. 이옥연, 〈중국인 디아스포라와 高行健의 문학〉, 《中國語文學誌》, Vol.14., (중국어문학회, 2003.), pp. 384-385.

60) 정진농 편저, 《미국소수민족문학》, (서울: 동인, 2010), p. 99.

준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사용 언어에 따라 화인화문문학, 화인영문문학, 화인 한국어문학, 화인 일문문학 등의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에는 중국어로 된 것을 주로 중국대륙 문학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중국문학이라는 틀 속에 분류하고 영어로 된 것은 미국의 소수민족문학으로 분류하곤 했는데, 이것은 한국문학이 제외 동포문학이라고 부르면서 영어로 된 것은 한국계 미국문학으로 한국어로 된 것은 제외 한국인 문학으로 분류하는 것과 동일한 분류방식이다.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특징들은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화인화문문학의 정위를 다원적인 세계 속에서 새로운 하나의 중심으로 본다면,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은 장차 북미 화인 디아스포라문학, 동남아의 화인 디아스포라문학, 유럽의 화인 디아스포라문학, 아시아의 화인 디아스포라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화인화문문학과 디아스포라

가야트리 스피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역학이 냉전시대 미국의 힘을 확보하기 위해 생겨났다면, 비교문학은 유럽 지식인들이 ‘전체주의’ 정권에서 망명해 왔기 때문에 생겨났다. 문화 및 탈식민주의 연구는 1965년 린든 존슨(Lyndon Johnson)의 이민법 개혁 이후 아시아 이민이 500% 증가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된다.⁶¹⁾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엄청난 양적 규모로 보아 현대인들의 삶 속에 디아스포라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것이 곧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오던 것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미국지역학에서 왕왕 사용하던 ‘melting pot’이라는 말은 이제는 ‘melting pot’에서도 한 차원 더 진전된 단계로 나아간 ‘다문화주의’ 즉, 다원적이고 다자적인 문화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말은 곧,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문학에 대해서도 더 이상 주변부에 두고 지류 혹은 아류인양 취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적 현상을 진단하고 혼종 문화의 교집합에 자리하고 있는 이들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의 실제적 위치를 정립하는 한편 텍스트 비평을 넘어서는 문화학적 접근의 실마리와 가능성을 설명한 다음 중화주의를 넘어서는 화인화문문학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북미지역은 중국인 노동자들의 이주 초기에는 문학적 성과라는 것이 미미해서 언급할 수 있는 작품들이 거의 없지만 1930년대 이후부터 이주자들의 문학 활동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1970년대 무렵부터는 미국 사회에서도 이들의 문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白先勇, 於梨華, 張系國, 聶華蓀은 공통적인 이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학술적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왕성한 문학창작활동으로 끊임없이 문단에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다. 특히 상실에 대한 감성을 풍부한 문학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白先勇과 공상과학소설로도 유명한 張系國, 유학생 문단의 거봉인 두 여류작가 於梨華와 聶華蓀 등은 북미지역 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홍콩, 그리고 중국대륙에서까지 유명한 작가들이다.

안토니 이스트호프(A. Easthope)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문학연구자들은 모더니즘적 읽기를 벗어나야 하며 이를 문화연구라는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기초로 삼음과 동시에 올바른 이데올로기적 역할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안

61)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지음, 문학이론연구회 옮김, 《경계선 넘기-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 (경기: 인간사랑, 2008), p. 34.

토니 이스트호프가 말하는 모더니즘적 읽기는 문화적 접근과 문화학적인 해석을 접목시키자는 의미이며, 중심/주변의 정위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이를 방증하는 예가 된다. 한국의 중국문학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을 살펴보다도 최근 발표되는 논문들은 지역적으로 차츰 중국대륙을 벗어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의 연구법을 탈피하여 소수의 문학, 피지배계층의 문학, 제3세계 작가들의 문학으로 시각을 넓히고 있다. 게다가 “소설의 줄거리를 논하고 작중인물의 성격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연구방법은 물론 여전히 유효하지만, 전위적이며 개척적인 시도를 하는 연구자들로부터는 다소 멀어졌으며 소설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찾아내고 시대적인 역할 등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⁶²⁾고 볼 때, 연구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커진다.

문학에 대해 역사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부여된 지위는 해체 혹은 재해석되었으며 기존에 있어왔던 ‘문화’의 개념을 통해서 다시금 바라보게 된 시점에 이르렀다. 포스트 모던한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존의 이데올로기 주도 세력권과 비주도 세력권을 ‘중심’과 ‘주변’으로 이분하던 시대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중심이 중심으로서 역할하고 작용하는 것과 주변이 주변으로서 중심과 균형을 맞추면서 존재하는 데 대해서, 그 지평도를 다시 그려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학계의 다양한 관심과 연구를 촉발한 것도 사실이다. 문학의 정전화와 고급문화/대중문화의 이분법도 이러한 ‘중심’과 ‘주변’으로 대표되는 탈이데올로기적 논법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재논의되고 있다.⁶³⁾

다문화주의에 반해서 전략적 민족주의가 성행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민족이라는 용어 대신 ‘에스닉’을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 학계 특히 한국 인류학계에서는 이를 보통 ‘종족’으로 번역해서 사용한다. 민족이라는 경계를 정확하게 규정짓는 것이 이제는 곤란하고 불분명해졌다.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 관해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주의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담론에 대해 중요한 시각들을 언급했는데 그는 민족이라는 것이 상상된 어떤 것이며 모든 합리화의 명분이자 국가 정책 발휘의 효과적 도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에릭 홉스봄의 경우는 실재하는 공동체로서의 민족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앤더슨의 논의를 다른 각도에서 더욱 발전시킨 예로 여겨진다.

세계 각지에 만연한 디아스포라들은 스스로 각각의 집단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공감을 이루는 다양한 상상된 어떤 것들을 공유하게 된다. 그것은 상상된 고향이 될 수도 있고 상상된 민족 또는 상상된 공동체 등 그 무엇으로 불려도 좋다. 이들은 그 무엇을 공유하게 되고 간혹 공유하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기도 하며 실제적으로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거나 찾았다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것들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 머물며 서로에게 이질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다.

화인화문문학의 중요성은 그 잠재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중문화의 상황 속에 노출되어 ‘접촉 시대’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칫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을 위험성을 안고 있으나 동시에 다양한 모든 것들을 포용하여 새로운 어떤 것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아스포라로 불릴 것이며, 이들의 문학은 디아스포라문학으로 명명되어 읽힐 것이다. 따라서 디아스포라들이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그들이 새롭게 이루어낼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의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2) 고혜림, 〈21세기 중국문학연구의 전환과 고민〉, 《중국학논총》 제21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7.3), pp. 124-125 참조.

63) 고혜림, 〈21세기 중국문학연구의 전환과 고민〉, 《중국학논총》 제21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7.3), p. 124.

소수적인 문학에서는 각각의 작가가 말한 것이 이미 하나의 공동 행동이고, 그가 말하거나 행한 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이다- 그가 동의를 하든 말든 간에. 정치적 자장(磁場)이 모든 언표(énoncé)를 감염시키고 있다. 더구나 집합적 내지 민족적 의식이 “외적인 생활에서는 종종 소극적이며 언제나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문학이 이러한 집합적 내지 심지어 혁명적인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떠맡고 있는 것이다. 회의주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연대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비록 작가는 주변에, 혹은 그의 취약한 공동체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이 그런 만큼 다른 잠재적 공동체를 표현케 하며, 다른 의식과 다른 감수성의 수단을 버리게 한다.⁶⁴⁾

들뢰즈-가타리는 소수적인 문학의 세 가지 특징으로 ‘언어의 탈영토화,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직접성의 연결, 언표행위의 집합적 배치’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적이라는 말은 특정 문학을 특징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문학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학의 혁명적 조건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민중 문학이나 주변적 문학 등을 정의하도록 해주는 것은 오직 다수적인 언어 그 자체의 소수적인 이용을 그것의 내부에서 수립할 가능성 뿐’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들뢰즈-가타리는 ‘소수적이지 않은 위대한 문학이나 혁명적 문학은 없다’고 말한다.⁶⁵⁾ 들뢰즈-가타리의 글을 참고하자면, 디아스포라문학의 기본 틀에 입각해서 화인화문문학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⁶⁶⁾ 앞서도 밝혔듯이 사용 언어가 삶에 미치는 영향, 또는 문학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가 더 핵심이라는 차원에서 화인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의 삶을 중국어, 즉 화문으로 표현한 작품은 화인화문문학이 되며, 이들이 영문으로 표현한 작품은 화인영문문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화인 디아스포라 연구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들을 줄곧 ‘타자화’ 시켜서 바라보는 비평이론의 시각이다. 하지만 ‘타자’의 등장은 탈근대, 포스트식민의 세계적 추세와 어울려 더 이상 배제 혹은 소외라는 지위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중심의 재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분석되고 이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펼쳐진 탈근대(post-modern)의 세계 상황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과거에는 주체성의 바깥에 놓임으로써 단지 무의미와 우연의 산물로 배척되었던 타자의 의미와 가치, 지위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이 이루어졌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타자야말로 나-주체가 등장할 수 있는 근본적 토대임이 지적된 까닭이다. ‘타자의 철학’이 대개 도덕 철학과 윤리학의 영역에서 먼저 논의되었던 까닭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배제되고 억압되었던 타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자는 것, 타자에게 공감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삶을 구축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⁶⁷⁾

64)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공저, 이진경 옮김,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서울: 동문선, 2001), p. 46.

65)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공저, 이진경 옮김,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서울: 동문선, 2001), p. 48과 p. 67을 참고.

66) 화인화문문학은 단순히 언어상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집단에 공통의 역사적 기억과 공통의 정서적 표현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p. 105.

67) 최진석, 〈타자 윤리학의 두 가지 길: 바흐친과 레비나스〉, 《노어노문학》 Vol.21, No.3, (한국노어노문학회, 2009), p. 175.

최진석의 논문에서는 철저히 레비나스와 바흐친의 철학과 윤리학적 관점에서의 ‘타자’를 주체와 대비시켜 분석하고 있으므로 온전히 바흐친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본 논문에서는 바흐친이 설명하는 타자의 개념을 일부 받아들여서 실제로 시급한 화두인 화인화문문학의 중심/주변 이항대립 구조 속에서의 위치 문제 및 문학 자체로의 가치평가를 위한 문제제기 측면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타자가 주변에 머물던 시대도 변했다. ‘타자의 철학’은 이미 철학과 윤리학의 학문적 경계는 넘어서 문학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어오고 있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소수적인 문학’에서 이해되는 바도 마찬가지로 이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곧, 화인화문문학이 이제는 중국대륙 중심의 문학의 지류로서의 타자 혹은 귀속되어야 할 객체의 지위를 벗어나 좀 더 새롭고도 주체적인 새로운 중심을 이루는 구성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소위 ‘타자’들의 문학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다.

문학비평이 텍스트를 심미적인 관점에서 비평하는 단계는 이제 이미 넘어섰으며 심지어는 이미 보편화되었다. 다양한 학제의 경계를 허물고 문학을 문학 자체로만 평가하지 않으며 인접학문, 혹은 전혀 새로운 학문적인 분석틀과도 교류하며 상호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문학비평이 비교적 접목하기 수월하며 그리고 유효한 비평의 결과를 양산해내는 데 있어서는 사회학, 인류학, 문화학과의 연계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는 서구 인문학계에서는 통합적으로 수용하여 비교문학, 비교문화학, 지역학의 이름으로 연구되어오고 있다. 텍스트 비평에 치중하여 화인화문문학의 본질적인 논의의 방향성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텍스트 비평을 넘어서는 문화학적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가능성 혹은 전망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디아스포라문학이 지금 우리들의 문학의 현재형 혹은 미래형이 된다면 문학비평도 이들과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은 자명하다. 학계는 몰려오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문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심하고 방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출로가 있을 것이며 체계화되어 완성된 형태의 새로운 문학들이 등장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다만,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인식이 중국대륙 뿐만 아니라 한국 내의 중국문학계에서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주변화 된, 즉 중국대륙 문학의 변방에 위치한 하나의 결과지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며 어쩌면 앞으로의 문학, 앞으로의 문학비평이 나아가야 할 수많은-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단일한 문학, 단일한 문학비평만을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어떤 문학이자 동시에 문학비평이 될 것은 확실하다. 그들의 작품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곧 화인화문문학의 특징이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 자체의 문학적 가치들이 넓은 무대에서 제 각각의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이 비평가와 연구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5.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미래와 전망

중국대륙과 타이완과 북미 지역의 타이완 출신 학자들은 화인화문문학을 각자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해외중국문학, 유학생 문학, 화어계 문학 등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특정한 민족국가의 문학영역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왔다. 여기서는 앞서 중국대륙과 타이완 출신 북미 학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그들의 주장과 한계를 개진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들에게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화인화문문학에 대해서는 중국어 해독능력이 있는 연구자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화인 디아스포라문학 연구는 영어와 화어와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적 해독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고찰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자체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이들이 독립되고도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의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전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디아스포라적 주체와 그로 인해 양산되는 여러 가지 담론들은 기존의 성, 인종, 국가의 범주에

단일적으로 소속되기보다 이러한 범주에 복수적으로 소속되는 개인이 증가하는 글로벌 시대에 고정된 정체성 개념으로는 혼성적 주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문학적 가치에 대한 일종의 보상은 곧, 문화와 문학에 대한 그리고 중국문학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더 나은 틀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로써 그들의 문학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더욱 활발한 장을 열어주는 것, 나아가 편향된 시각에서의 편협한 해석과 독법을 벗어나 범세계적이고 범인류적인 주제 의식을 통해 그들을 판단하도록 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 전환과 범주의 확대는 문학을 통한 문화 이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며, 진화는 중국문학 연구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다.⁶⁸⁾

자본주의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간의 삶을 주도하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에서는 물론이고 자본주의를 기치로 내걸지 않는 국가들에서조차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면서도 그것의 수정이나 폐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본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떠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면서 현대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닌 지역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다. 현대인들이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심지어 다른 국가로의 이동시에도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현대인들의 이주를 정당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이유로 작용했다. 타고난 민족이 허구라고 주장했던 베네딕트 앤더슨의 말과 같이 이제는 나고 자란 국가와 국적이라는 것도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선천적이고 태생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이고 선택적인 항목이 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화인 디아스포라 및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이라는 측면에서 화인화문문학을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문학텍스트 비평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 오히려 이들의 문학을 통해서 문화를 논하고, 다시금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투영시켜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화인화문문학 연구는 최소한 두 가지의 양면적인 앞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즉 한편으로는 중화주의의 강화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주의의 해체라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 집단의 새로운 형태인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⁶⁹⁾ 화인화문문학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입장은 연구자들 각자의 몫이지만 특정 이데올로기나 전략적 도구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분명 새로운 인간집단인 디아스포라에 의한 문학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대륙, 타이완, 북미도 아닌 한국의 연구자가 가져야 될 시각과 화인화문문학에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적절한 판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언어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므로 속문주의, 속어주의는 화인화문문학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비록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의 소위 ‘민족문학’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의 민족주의의 의미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중화주의를 일컫는 것이 결코 아니기에 좀 더 광의의 의미이자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전지구적인 네트워크의 바탕 위에서 규정지을 수 있다. 이것이 곧 포스트식민주의와 탈근대주의적 맥락에 입각한 시각으로 기존 중국대륙의 중화주의로의 통합이라는 전략과는 다른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화인화문문학 연구에 있어서 “문자가 아닌 생명, 문화, 생존, 그리고 문화학적 영역 내의 회로매락의 표현들에 집중”⁷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풍부하고 다채로운 인간의 삶,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

68) 고혜림, 〈수용과 배제: 킹스턴의 《여인무사》를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Vol.30, (서울: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p. 334.

69)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p. 110.

다. 화인화문문학의 비평과 분석이 모두 ‘생명’, ‘삶’ 이외의 것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국 세계화라는 것은 과거에는 힘들게 여겨졌던 외국으로의 여행, 이주, 이민 등 불가능한 저 먼 세상의 일을 현실로 옮겨놓았다. 산업화와 더불어 과학기술로 인한 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낸 성과는 마침내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버렸다. 정치적 난민의 신분에서 쫓겨나 다시피 떠나야만 했던 시절과는 다른 시대인 지금은 돈이, 그리고 경제가 사람을 자신이 나고 자란 고국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 단순히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디아스포라문학도 연구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디아스포라문학은 이미 진행 중인 문학이며 미래형일 수 있다. 이제는 문학이 한 국가에서만 소비되던 시절도 지나 초국가적인 문학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가장 활발한 문학의 형태나 틀이 될 가능성을 명백히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각국의 외국어 교육 열기와 더불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어떤 한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또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동시에 번역되어 나와 독자들에게 읽혀지는 소비 방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화인화문문학은 중국의 대륙문학이 주도하는 큰 흐름 속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삶이 우선이고 문화는 그 다음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文化的華文文學》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렇기에 ‘어종적 화문문학’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기존과 현재의 연구 틀은 본질을 가리고 있다.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왜곡되고 과장되며 강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흐름을 주도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향수’와 ‘뿌리 찾기’가 그 본질보다 지나치게 신성시되고 이러한 면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 버렸다.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과연 모든 해외의 화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고 열망하는 욕망의 근원이자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화문문학’과 ‘문화적 시각에서 보는 화문문학’은 분명 다른 것이며 오히려 후자에 대한 반동이자 반발로 보아야 한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화인화문문학은 모든 방법론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화인화문문학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 역시 한 가지 시각이자 방법론일 수 있다. 다만 정체성이 심리학에서 문학비평으로 넘어온 시점에서 이미 한 차례 전유를 겪었고 이제는 ‘정체성’을 비평의 주제로 가져올 때 좀 더 참신한 방법론을 추가해서 가져와야 한다. 그러므로 정체성이나 노스텔지어 문제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정체성만을 혹은 노스텔지어만을 다루는 단계는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들은 뿌리 뽑힌 자들도 아니며 뿌리를 잃거나 버린 자들도 아니다. 그들은 현재 몸담고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살거나 어디든 옮길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식물이 되어 한 지역에 뿌리내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뿌리 자체를 넘어서 떠도는 삶을 선택한 이상, 그 삶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내고 사랑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중국어라는 언어를 표현수단으로 삼고 소설을 표현장소로 삼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디아스포라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게다가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더욱 풍부한 문학적 소재와 제재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속에 문학적 상상력을 덧붙여 이제는 명백히 전 세계적 현상이 된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교감을 이루게 될 것이다.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 출발 단계에서는 자아정체성 및 문화정체성 문제와 연계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보편적인 현대인의 인간 실존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인화문문학 작품들은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와 치밀한 구성 외에도 보편적인 문제 및 문화적인 혼

70) 莊園編, 《文化的華文文學》, (汕頭: 汕頭大學出版社, 2006), p. 153.

중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따라서 가히 선구적이라 말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룬 바와 같이 화인화문문학 중 북미지역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문제의식, 인물창조, 스토리 전개와 같은 측면에서도 그 어느 작품들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러나 어쩌면 시대를 앞선 작가들의 역량과 상상을 담아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Christianne Harzig and Dirk Hoerder with Donna Gabaccia, *What is Migration History?*, (Cambridge Malden: Polity Press, 2009)
- David Der-wei Wang, *The Monster That Is History: History, Violence, and Fictional Writing in Twentieth-Century Chin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 David Pendery, "Identity development and cultural production in the Chinese diaspora to the United States, 1850-2004: new perspectives", *Asian Ethnicity* Vol.9, No.3, October 2008
-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초판), 2004
-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New York: Routledge, 1992
- Shi, Shumei, *Visuality and Identity: Sinophone articulation across Pacifi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 Shih, Shu-mei, *Visuality and Identities: Sinophone articulation across Pacifi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 Xiao-huang Yin, *Chinese American Literature since the 1850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0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지음, 문학이론연구회 옮김, 《경계선 넘기-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 (경기: 인간사랑, 2008)
- 게리 솔 모슨, 캐틀 에머슨 지음, 오문석 등 옮김, 《바호친의 산문학》, (서울: 책세상, 2006)
- 고혜림, <21세기 중국문학연구의 전환과 고민>, 《중국학논총》 제21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7.3), pp.
- 고혜림, <수용과 배제: 킹스틴의 《여인무사》를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Vol.30, (서울: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p.
- 김용규 옮김, 로버트 J.C.영 지음, 《백색신화: 서양이론과 유럽중심주의 비판》, (부산: 경성대 출판부, 2008)
- 김용규, <포스트 민족 시대 혼종과 틈새의 정치학: 호미 바바 읽기>, 《비평과 이론》 Vol.10 No.1, (서울: 한국비평이론학회, 2005), pp.
-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서울: 그린비, 2011)
- 레이 조우, 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전술》, (서울: 이산, 2005)
- 박경선,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타자화와 그 문제점>, 《역사비평》, Vol.-No.58, (역사문제연구소: 2002), p.
-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 (서울: 돌베개, 2006)
- 성정혜, 《탈식민시대의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살만 루시디의 『자정의 아이들』, 『수치』, 『악마의 시』》,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 신용하, <‘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 《한국사회학》 제40집1호, (한국사회학, 2006), pp.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이용일, <학제적 이주연구로서 이주의 역사>, 《로컬리티 인문학》 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10)
- 이옥연, <중국인 디아스포라와 高行建의 문학>, 《中國語文學誌》, Vol.14., (중국어문학회, 2003.)
- 이한창, <제일 동포문학의 역사와 그 연구 현황>, 《제일 동포 문학과 디아스포라》, (서울: 제이앤씨, 2009)
- 정은경, 《디아스포라 문학》, (서울: 이룸, 2007)
- 정진농 편저, 《미국소수민족문학》, (서울: 동인, 2010)
-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공저, 이진경 옮김,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서울: 동문선, 2001)
- 최진석, <타자 윤리학의 두 가지 길: 바호친과 레비나스>, 《노어노문학》 Vol.21, No.3, (한국노어노문학회, 2009), p.
- 프란츠 파농, 남경태 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그린비, 2004)
- 허세욱, 《華文文學與中國文學》, 《중국어문논총》 1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1996), pp. 201-212.
-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서울: 소명출판, 2002)
- 황은덕, <강용홀의 『동양사람 서양에 가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주제>, 정진농 편저, 《미국소수민족문학》, (서울: 동인, 2010.4), pp
- 古繼堂主編, 《簡明臺灣文學史》, (北京: 時事出版社, 2002)
- 李黎, 《傾城附錄》, (臺北: 聯經, 1989)
- 史進, <論東西方華文作家文化身份之異同>,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2004年第2期,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2004.2)
- 葉枝梅 主編, 《海外華人女作家評述: 美國卷》,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6), 서문.
- 倪立秋, 《新移民小說研究》, (上海: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09)
- 王景山編, 《臺港澳暨海外華文作家辭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3.7)
- 王德威, 《當代小說二十家》,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6), 序
- 王德威, 《小說中國: 晚清到當代的中文小說》, (臺北: 麥田, 1993)
- 王德威, 《眾聲喧嘩以後》, (麥田出版, 2001)
- 王潤華, <後殖民離散族群的華文文學>, 《文訊》 第189期, 2001.7, pp.
- 王潤華, 《華文後殖民文學——本土多元文化的思考》, (臺北: 文史哲出版社, 2001)
- 李亞萍, 《故國回望: 20世紀中後期美國華文文學主題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2006)
- 莊園 編, 《文化的華文文學》, (汕頭: 汕頭大學出版社, 2006)
- 陳浩泉 主編, 《楓華文集: 加拿大作家作品選》, (Burnaby: 加拿大華裔作家協會出版, 1999)
- 肖薇, <文化身份與邊緣書寫>,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2004年第1期,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2004.1), pp.
- 彭瑞金, 《台灣新文學運動四十年》, (臺北: 自立晚報, 1991)
- 黃昆章, 吳金平 《加拿大華僑華人史》,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1)
- 黃萬華, 《民族性和公民性間的复杂糾結》, 饒芃子, 《流散與回望》,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7)
- 黃萬華, 《美國華文文學論》,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00)